

미주 OMTC 수료식... GMS 선교사 9명 배출

3주간의 합숙훈련 마치고 선교 현장 향해



선교사 임명식에 앞서 미주 OMTC 관계자들이 기념촬영했다. (왼쪽부터) GMS 미주지부장 김영록 선교사와 미주 OMTC의 이사 이상돈 목사, 이사장 박무용 목사, 이사 민찬기 목사, 미주 OMTC 훈련원장 이병구 선교사.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총회계 선교교회 GMS가 선교사 훈련과 발굴을 위해 실시한 미주 OMTC 제4기에서 9명이 수료하고 선교사로 임명됐다.

GMS 미주지부는 LA에서 지난 2월 13일부터 3월 2일까지 3주간 합숙하며 강도 높은 선교 훈련을 진행했다. 미주 OMTC 이사, 선교학

교수, 현장 선교사, 전문인 선교사 등 다양한 인사들이 강사로 참여했다.

이번에 GMS 선교사로 임명된 9명 중 6명은 이미 선교 사역을 하는 현직 선교사였다. 그들은 캄보디아에서 장애인 선교, 알바니아에서 집시 난민 선교, 아프리카, 과테말라, 인도 선교 등 다양한 국가에서 사역

하고 있었다. 이들은 현장에서 선교사로 이미 사역하고 있지만 GMS의 체계적인 훈련과 파송을 목적으로 이번 훈련에 참여했다. 이민목회자 가운데 선교적 교회를 지향하거나 선교사 파송을 준비하는 사모와 평신도도 이번 훈련에 참여했다.

미주 OMTC 제4기 수료식 및 선교사 임명식은 3월 2일 컴미션 센터에서 진행됐다. 이상돈 목사(미주 OMTC 이사)의 사회로 예배가 시작돼 민찬기 목사(미주 OMTC 이사)가 기도하고 김영록 선교사가 성경을 봉독한 후 박무용 목사(미주 OMTC 이사장)가 “복음을 위하여”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수료식 및 임명식은 이병구 선교사(미주 OMTC 훈련원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박무용 목사가 수료증을 수여하고 신임 선교사들로부터 서약을 받았다. 미주 OMTC 이사들과 선교사들이 신임 선교사들에게 안수기도를 한 후 박무용 목사가 임명장을 전달했다. 박기호 교수(풀러신학교), 박헌성 목사(미주 OMTC 이사), 김영록 선교사(GMS 미주지부장), 고귀남 목사(LA연합교회)가 축사와 격려사를 전했다. 모든 순서는 박무용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김준형 기자

“서류미비자 한인 학생 응원합니다!”

기독교기업 리스장의사가 서류미비자 한인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선발한다. 최근 반이민 행정명령 등으로 인해 학업에도 고통을 받고 있는 한인 학생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다.

목회자 등 커뮤니티 지도자들의 추천서와 자신의 꿈과 희망, 현재 상황을 담은 한글 자기 소개서

를 hr@leesmortuary.com으로 보내면 된다. 접수 기간은 4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이며 6월 5일까지 선발이 완료된 후 6월 10일에 리스장의사 오렌지 본사에서 장학금이 전달된다. 학생 20명에게 각각 5백 달러씩 총 1만 달러의 장학금이 준비되어 있다.

리스장의사의 이동주 사장은 “우

리 같은 작은 한인기업도 서류미비자 학생들의 아픔에 동참하며 그들을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1966년 설립된 리스장의사는 남가주 LA와 오렌지카운티, 애틀랜타, 시카고 지사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장례식장 외에도 고인의 자택이나 교회에서 장례식을 치를 수 있도록 출장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문의) 714-469-1040



한인 목회자들이 올림픽경찰서 소속 경찰들에게 바비큐와 함께 다양한 한국 음식을 대접했다.

“커뮤니티 섬기는 경찰들 감사합니다”

남가주목사회 올림픽경찰서 방문

남가주 한인 목회자들이 3월 2일 LA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올림픽경찰서를 방문해 점심 식사로 바비큐를 대접했다. 김영구 남가주한인목사회장, 샘 신 수석 부회장이 청바지를 입고 나와 직접 갈비를 구웠고 여러 목회자와 사모들이 음식을 서빙했다.

목사회는 지난 3월 1일 탈북민 돕기 자선음악회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 참석했던 피종진 목사(남서울중앙교회 원로)와 찬양가수 나경화 선교사, '통일양상빌 원'도 올림픽경찰서를 방문했다. 피목사는 짧게 인사를 전했고 나선교사와 통일양상빌 원은 아름다운 음악을 선사했다.

경찰들은 한국 전통 음악 연주에 큰 박수를 보내고 한인 목회자들이 준비한 음식을 맛있게 즐겼다.

올림픽경찰서를 물심양면으로 후원하며 한인 커뮤니티와의 소통을 도우는 올림픽경찰서 후원회 관계자들도 이 자리에 함께했다. 데이빗 송 후원회장은 이날 참석한 20여 명의 경찰과 20여 명의 한인 목회자들 모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샘 신 수석부회장은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경찰들에게 한인 커뮤니티를 대표해 감사드립니다”고 전했다.

김준형 기자

“예수영매를 따라 광야로 나선 순례자들의”
기독교 대한감리회 빈들교회
 담임목사 : 김 용 조
 ■ 예배시간 안내
 주일예배 오전 11:0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32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Tel: (818)518-0033

ASE CERTIFIED 나라정비
 나라오토먼트 유류차 전문점 SMOG CHECK
 타이어 대리점
GOODYEAR
 범퍼·도어·바디복원·무료견적·Rent Car
 월~금: 8am~6pm, 토: 8am~5pm 1201 S. Western Ave, LA 웨스트관과 12가
323.734.4881

그린카피어
 Green M. Wild IMAGE SYSTEMS
 Office and Industry Technology Solutions
 Lease/Rent/Sale/Repair/Toner/Maintenance
 갈라복사/갈라프린트/갈라스캔/팩스/네트워크
 교회 및 자선, 비영리단체는 특별 할인 혜택
 greenmwild@gmail.com
 TEL: 213 705 7778
bizhub KONICA MINOLTA

제5회 미주 청소년 효 글짓기, 그림 공모전

2017 효사랑

응모대상 초등부(1학년~5학년), 중고등부(6학년~8학년), 고등부(9학년~12학년)
 장애우 청소년(학년과 나이 제한 없는 청소년)

응모주제 효 글짓기(한글, 영문 모두 가능함), 효 그림
 “부모님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들!”
 “What I Want to Share with my Parents!”

응모분량 효 글짓기(Letter size 3 pages, 글자크기 12 pt)
 효 그림 (크레파스화, 수채화, Drawing, 아크릴 등)

도화지규격 초등부(1st~5th) - 14" X17" (S)
 중고등부(6th~12th) - 18" X24" (L)
 * 작품 제출시 작품 뒷면에 10줄 이내로 내용을 설명해야하며, Full Name, Grade, E-mail, Mailing Address, Phone No.를 꼭 명시해야 함

접수기간 2017년 3월 10일 ~ 4월 8일(토) 마감

시상일시 2017년 4월 22일(토) 오전 10시
 플러튼 장로교회(515 S. Brookhurst Rd, Fullerton CA 92833)
 축하공연 : CTS 어린이 합창단, Lenette 연주단 공연

작품제출 및 문의 **효사랑선교회 (SBC)**
 Tel. 714.670.8004 Cell. 562.833.5520
 (7342 Orangethorpe Ave #B113, Buena Park, CA 90621)
 E-Mail : hyosarangung@gmail.com

제출방법 우편, 방문, E-mail(글짓기에 한함), 그림 작품은 개인별로 접수 합니다.

“미래의 꿈인 청소년들에게 가족과 가정을 통해 “나는 누구인가?”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고 진정한 행복은 가정에 있음을 배우고 바른 가치관으로 성장하여 미래의 주역이 되는 것이다.”

효사랑 글짓기, 그림 시상 * 참가 학생 전원에게 기념품 및 상장 수여

대 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특별상
HEIVN상
(11학년 only)

Notebook (최신형 모델)
Samsung Tablet
상장 & Android Tablet
상품
상품



세계기도일 예배를 마친 후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했다.



나성순복음교회 임직예배에서 8명의 일꾼이 임직했다.

세계기도일 “차별 없는 세상, 공평하신 하나님”

남가주 지역 한인 기독교여성들이 전 세계 기독교여성들과 함께 필리핀을 위해 기도의 손을 모았다. 미주 한인교회 여성연합회 남가주지부는 3월 4일 동양선교교회에서 2017년 세계기도일 예배를 “차별 없는 세상, 공평하신 하나님”이란 주제 아래 드렸다.

130년을 맞이한 세계기도일은 1887년 다윈 제임스 여사(미국장로교 국내선교부 의장)가 당시 유럽, 아시아 등지에서 미국으로 유입된 이민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날을 정한 데서 유래돼 전 세계로 확산됐다. 이날은 한 나라의 여성들이 작성한 기도문을 전 세계 여성들이 함께 읽고 기도하며 헌금을 모아 그 나라로 보내는 것이 특징이다. 올해

는 필리핀의 여성들이 기도문을 작성했다.

미주 한인들은 미주한인교회 여성연합회를 중심으로 1979년부터 세계기도일을 지키고 있다. 원래 세계기도일은 매년 3월 첫째 금요일인데 남가주지부는 토요일에 지키는 것이 특징이다.

최미란 사모(밸리연합감리교회)의 사회로 시작된 예배에서는 남가주지부 회장인 최순자 사모(LA 임마누엘교회)가 환영 인사를 전했다. 이어 이란에 장로(선한목자교회), 이영희 권사(드림교회), 강정희 장로(남가주살롬교회), 신하나 사모(미주나눔교회), 유화진 권사(인랜드교회), 김민선 집사(토랜스제일장로교회), 석승연 권사(은

누리교회), 안선신 목사(예수사랑교회) 등 다양한 교회로부터 다양한 직분을 가진 여성들이 기도를 인도했다.

설교는 동양선교교회 박형은 목사가 이번 기도회의 주제와 동일한 “차별 없는 세상, 공평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전했다. 헌금기도는 정의희 권사(동양선교교회)가 했다.

기도 순서 중간에 글로리아 난타팀, 비파와 수금팀, 이화여대 남가주동문합창단, 헤세드글로벌예술선교회, LA여성선교합창단 등이 특별 찬양해 예배를 더욱 풍성하게 했다. 축도는 남가주한인여성목사회 김헬렌 회장이 했다.

김준형 기자

나성순복음 43주년 맞이해 임직식

나성순복음교회(담임 진유철 목사)가 창립 43주년을 기념하며 3월 1일 임직감사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에서 6명의 안수집사와 2명의 권사가 임직했다.

예배에서는 진유철 목사가 설교했다. 진 목사는 “주님이 처음 계획하셨던 교회(마16:15-19)”란 설교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꿈은 바로 십자가와 교회였다”면서 “대속의 십자가의 꿈은 주님께서 이루셨는데 이제 교회는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전

했다. 그는 “주님이 처음 계획하셨던 교회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의 공동체로서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서 말씀과 기도로 역사하는 교회”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임직식은 나성순복음교회가 속한 순복음세계선교회 북미총회 LA지방회장인 이상호 목사가 집례했다. OC지방회장인 배현성 목사가 축사, 은혜와사랑교회 임현철 목사가 권면을 전한 후 교단 증경총회장인 이영규 목사가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쳤다.



김용훈 목사가 베델한인교회에서 3일간 부흥회를 인도했다.

김용훈 목사 초청 춘계부흥성회

앨버마에 위치한 베델한인교회(담임 김한요 목사)가 3월 3일부터 5일(주일)까지 춘계부흥성회를 개최했다. 강사는 버지니아 열린문교회의 김용훈 목사였다.

그는 “하나님께 인정 받는 인생”이라는 주제로 메시지를 전했다. 집회 둘째날인 토요일 새벽 그는 “고난의 순간에 만나야 할 하나님”이란 메시지에서 자신의 삶을 간증했다. 불교가정에서 태어나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을 공부한 후 목사가 된

그는 33살에 열린문교회 담임에 취임해 26년째 목회 중이다. 교회가 어떤 곳인지 몰라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고난은 축복을 주시게 위해서다,” “내가 주님의 사람으로 변해야 한다”는 진리를 터득했다고 간증했다.

주일 마지막 집회는 “그 사랑만으로 만족하며 삽시다”란 주제 아래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주님의 양을 먹이는 제자의 삶을 살자”고 성도들을 권면했다. 권 헬비 기자



OC교협이 22일 큰빛교회에서 정기월례회를 열었다.

OC교협, 교계 소통과 화합 위해 다양한 사업

오렌지카운티기독교교회협의회(OC교협)가 2017년 한 해 동안 교계의 소통과 화합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OC교협은 월례회마다 OC 지역의 교단 대표를 초청해 교단에 대한 소개를 듣기로 했다. 2월에는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임영호 감리사가 초대됐다. 또 미자립교회들을 돕는 선교비를 지원하기로 해 필렌감리교회(배경태 목사), 늘찬양교

회(김효영 목사)에 전달했다. 개척을 준비 중인 이상호 목사도 선교비를 받았다.

이호우 회장은 “각 교단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미자립교회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 전했다.

2월 22일 월례회와 함께 이뤄진 기자간담회에서 OC교협은 2017년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OC교협의 정례 행사로 자리 잡은 4월 OC교계 부활절 연합예배, 5월 사모블레싱

은 종전대로 이뤄지며 7월에는 7인 7색 목회 세미나, 8월에는 임원 수련회, 9월에는 교단장 및 목회자 초청 간담회, 10월에는 종교개혁 5백주년 기념 포럼이 예정돼 있다.

한편, OC 지역 교계에 교단을 소개하고 싶거나 미자립교회로서 후원을 요청하고 싶다면 대외행정을 맡은 박재만 부회장(전화 714-952-0191)에게 연락하면 된다.

김준형 기자

www.saseducation.weebly.com

실무 10년의 노하우

SAS 인가컨설팅, Inc

대표 Paul Kim, Ph. D

Tel : (213)531-7215, (909)993-3028

2975 Wilshire Blvd, Suite B01, Los Angeles, CA 90010

- 직업전문대학인가(ACCSC)
- 신학교 인가(TRACS, ATS)
- BPPE 신규 및 재승인
- 어학원/온라인 프로그램

summitus37@gmail.com

Be Happy Foundation

비영리재단으로 새롭게 출범합니다

알 리 는 글

사회봉사, 선교, 긴급구호 및 전문인들의 재능기부를 받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는 일, 화해중재원사역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행복재단이 내외 귀빈들을 모시고 창립대회를 갖고자 하오니 기도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2017년 3월 20일(월) 오후 6시

장소 용수산식당(별관) T(213)388-3042
950 S Vermont Ave, LA, CA 90006

문의 T(323)870-5522, (714)706-2727

이사장 조선환, 회장 오진형 배상

남가주한인목사회 다양한 삼일절 행사 열어

남가주한인목사회(회장 김영구 목사)가 삼일절을 맞이해 다양한 행사를 개최했다.

먼저 3월 1일 삼일절 기념행사로 오후 2시에 탈북민 돕기 자선음악회를 한미장로교회에서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국악찬양 가수인 나경화 선교사와 통일양상블 원이 출연했다. 통일양상블 원은 남한과 북한의 전통 악기 혹은 개량 악기를 연주하는 팀이다. 또 LA정신여고합창단도 이 자리에서 아름다운 음악을 선사했다. 음악회에서 설교는 피종진 목사(남서울중앙교회 원로)가 전했다.

피목사는 이 행사 후 목사회 주최로 '미자립교회 목회자를 위한 영적 세미나'를 6일부터 7일까지 실로암수양관에서 인도했다.

또 목사회는 글로벌미주부흥사협의회와 함께 5일 삼일절 98주년 기념예배 및 이민 114주년 음악회를 세계아가페선교교회에서 개최했다. 부흥사협 회장 백지영 목사는 "이 음악회는 숭고한 삼일정신을 기림과 동시에 한인들이 미국 땅에 개척자로 첫발을 디딘지 114주년이 되는 해를 기념하는 행사"라고 전했다.

이 음악회에서는 세계복음화협



세계아가페선교교회에서 열린 삼일절 98주년 기념예배 및 이민 114주년 음악회를 마친 후 기념촬영

의회 대표총재이자 남서울중앙교회 원로인 피종진 목사가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어 목사장로부부합창단, 외대코랄, 조이플선교중창단, 에버그린합창단 등 한인사회의 대표적인 합창단들과 전문 음악인 소프라노 에

이미 로랜스, 사라 정, 테너 장상근, 오위영 등이 무대를 장식했다. 행사의 마지막엔 모든 출연진들이 '할렐루야'를 합창했다.



목회자를 위한 오디오북 클럽 및 오디오 드라마 바이블 세미나가 선한목자교회에서 열렸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함께 나눠요

무료 드라마 바이블 활용해서 성경 배운다

"기독교인 중에 1년에 한 권도 책을 읽지 않는 비율이 60%가 넘습니다. 특히 성경은 어렵다는 생각에 더 읽지 않습니다. 오디오 성경을 드라마처럼 만들어 마치 영화를 감상하듯 성경을 재미나게 읽을 수 있도록 수년간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 남가주 지역 목회자를 위한 '오디오북 클럽 및 오디오 드라마 바이블 활용 세미나'가 2일 선한목자교회(고태형 목사)에서 LA동부교역자협의회와 미주성서유니온이 후원하고 지앤엠(Grace & Mercy) 글로벌 문화재단이 주관한 가운데 개최됐다.

첫 번째 세미나는 고태형 목사(선

한목자교회)의 환영사, 김신일 목사(LA동부교협 회장)의 기도 후, 김도현 교수(콜로라도 크리스천대학)가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란 주제로 발제했다.

김 교수는 "성경은 중세시대 때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누구나 읽을 수 있기 전까지는 입에서 입으로 구전이 되었다"면서 "오디오로 성경을 함께 모여서 듣는 것은 성경적이며 공동체성을 회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패널 토의에서는 오디오 드라마 바이블을 어떻게 활용했는지에 대한 소개와 경험들이 이어졌다.

두 번째 강의에서 박동희 선교사는 Just Show Up(JSU)에 대한 소개

및 활용에 대해서 발제했다.

주최 측은 "성경과 기독교 서적을 사용해 북 클럽 형식으로 직장이나 캠퍼스에서도 모임을 가질 수 있고, 교회는 새벽예배를 대체할 수 있다"면서 "이 프로그램은 교회의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고 말했다.

한편, 지앤엠 글로벌 문화재단이 개발한 오디오 성경은 스마트폰 앱 스토어에서 '드라마 바이블'을 검색해 무료로 다운로드 할 수 있다. 드라마 바이블은 100여 명의 크리스천 배우와 성우들이 성경을 쉽게 감동적으로 들을 수 있도록 제작한 것이 특징이다.

이인규 기자

굿네이버스, 찾아가는 찬양예배

굿네이버스가 미주 한인교회들과의 동역을 꿈꾸며 예배 현장으로 찾아가는 '찬양 예배를 함께 드리며 사역을 소개하는 '사랑 나눔 찬양 예배'다.

교회에서 수요예배나 금요예배, 주일예배 등 교회의 예배 시간에 맞춰 굿네이버스를 초청하면 찬양 인도자 이은수 목사와 굿네이버스가 교회를 방문해 찬양으로 함께 예배드리다. 교회는 물론 크리스천 모임에도 찾아가는 굿네이버스가 정한 스케줄이 아니라 교회와 단체의 필요에 맞추어 행사가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그래서 토요일이나 주일 저녁 집회, 새벽기도회, 교회 내의 주중 여성기도회 등 언제 어디라도 찾아가는.

이 예배 중 해외 빈곤국가 어린

이들의 삶을 알려주는 짧은 동영상 이 상영되며 굿네이버스의 사역을 후원하기 위해 약정하는 시간이 있다.

굿네이버스는 1991년 한국에서 설립돼 1996년 한국 단체로는 최초로 UN 경제사회이사회로부터 NGO 최상위 지위를 부여받아 현재 전 세계 35개국, 185개 지부에서 국제구호개발사역을 하고 있다. 한인 교회 성도들이 해외로 자원봉사 단 기선교를 갈 수 있도록 추천하며 후원자가 자신이 후원하는 어린이를 직접 만나는 기회도 제공한다. 미국의 경우 자원봉사 크레딧과 미국 대통령 자원봉사상도 수여한다.

문의) 미주 김재학 사무국장
213-447-9898
joseph@goodneighbors.org



굿네이버스가 주력하고 있는 아프리카 빈곤국가 식수 개발 사업의 모습



• 이번에는 무슨 차로 할까? • 요즘 스포츠형이 있는 차가 무얼까?
• 자동차 구입할까? • 리스 할까? • 내가 용자가 될까?
안녕하세요! 10년의 경험을 기반으로 고객님들의 고민 해결을 한 방에 날려 드리겠습니다.
전화 주세요! 도와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다 둘러보세요 오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6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가, 찰리 정

푸엔테힐스 현대
Puente Hills Hyundai **HYUNDAI**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문/사/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아이비 유학

3·7·21재능캠프

LA 500 Shatto Place, Suite 200
Torrance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Irvine 17702 Cowan, Irvine, CA 92614

Shelby Kwon
Director

얼바인 홈스테이 정착 서비스

USA Tel: (949) 329-8222
Email: shelby.moon65@gmail.com
www.Mylvydream.com



BEULAH HEIGHTS UNIVERSITY
뿔라 하이츠 대학교

Beulah Heights 대학교는 1918년에 세워져 내년 (2018년도) 이면 꼭 100년의 역사를 가진 학교가 됩니다

이 학교는 Georgia주에 있는 아름다운 도시 Atlanta 에 위치하고 있으며, 본 대학교는Transnational Association of Christian Colleges and Schools (TRACS) The Council for Higher Education Accreditation and International Network for Quality Assurance Agencies in Higher Education (INQAAHE), Association for Biblical Higher Education (ABHE) 어크레디테이션 받은 학교입니다.

뿔라 하이츠 대학교의 학생들을 향한 목표는 첫째, 그리스도인의 학생들에게 높은 이상을 품게하며 성실성을 길러 하나님과 그리스도인 주님 그리고 성령님의 참된 의를 세상에 나타 내도록 노력하는 일꾼들을 양성 하는 것입니다. 둘째, 기독교 학생들에게 주님을 닮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합니다. 셋째, 기독교인들의 지도력을 양육할 뿐만 아니라 비 기독교인 학생들에게도 성경에 기초를 둔 인격과 인간성을 중심으로 양육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The Association for
Biblical Higher Education
ABHE Biblical-Transformational-Experiential-Missional

모 집 과 정
유학생들을 위하여 SERVICE (I-20FORM)



Master of Arts	Religious Studies Leadership Studies Business Administration	학사과정 졸업자나 동등자격자 MBA는 BBA 졸업자
Master of Divinity	온라인·통신강좌 가능	학사학위졸업자나 동등자격자
Doctor of Ministry		목회학석사 졸업자
Doctor of Philosophy		석사과정 졸업자

총장 : Dr. Benson M. Karanja, Ed.D., H.S.C., 부총장 : Dr. John Kim, 학장 : Dr. Mark Hardgrove, 한국부 디렉터 : Dr. Jho Kyung Soo
LA 분교장 : 배효식 박사, LA 코디네이터 : 이동규 박사

배효식 박사 Email : drhyopai@gmail.com TEL: 661-755-5442
이동규 박사 Email : miroway@hotmail.com TEL: 213-422-8916, 213-386-0300

본교 : P.O. Box 18145, 892 Berne St, S.E. Atlanta, GA 30316 Tel : 404-627-2681
LA분교 : 978 S Hoover St #201, Los Angeles, CA 90006 (충신 대학교 신학 대학원 내)

〈선교 부흥을 회복하라〉

이상훈 목사의 열방 이야기 9



“꿈에 나타나신 예수님” 통해 그리스도인이 된 이맘

필자는 2007년 터키 선교를 처음 시작하여 지금까지 매년 터키 단기선교를 다녀오고 있다. 지난 10년간 동토와 같았던 터키의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며, 교회 간판을 달진 못하지만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말라티야의 순교자인 틸만 선교사가 개척했던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정말 뜨겁게 예배드리던 한 터키 현지인이 생각난다.

그는 이슬람의 종교지도자인 이맘이었다. 어느날 밤에 잠을 자던 중 꿈에서 한 사람이 성전 같은 곳에 서서 자기 쪽을 향하여 부드러운 목소리로 무언가를 가르치고 있었다고 한다. 그 말씀을 경청하다가 잠을 깼다. 그 이후에 몇 번이나 더 그런 꿈을 꾸다가 일어났다고 한다.

어느날 그는 한 교회를 지나다가 자신이 꾸 꿈이 이 교회와 관계 있지 않을까 하는 호기심이 들어 교회 안으로 들어갔다. 그 안에는 몇몇 사역자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이맘이 들어오니 혹시 소란이 일지 않을까 두려워했다고 한다. 그러나 예배당에 들어온 그는 한복판에 놓여져 있던 그림을 보고 몸이 굳어질 정도로 놀랐다 한다.

자기 꿈에 나타나 말씀을 전하던 그 사람의 모습이 그 그림

에 그대로 담겨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가 한 사역자에게 물었다. “저 그림의 사람이 누구인가?”

사역자가 대답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모습이다.”

그가 다시 말했다. “저 분이 내 꿈에 나타났었다. 한번도 아니고 몇번씩이나.”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 배우고 싶다 하여 성경공부와 상담을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다. 이슬람 성직자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다.

선교 부흥은 우리의 이성, 학문이나, 신학을 초월하여 일어난다. 학문적 배움이 많은 자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을 통하여 부흥이 일어난다. 성경 말씀처럼 불같이 바람같이 일어난다. 나는 선교사들을 통해 팔레스타인에서도, 요르단에서도, 이집트와 이란 등에서도 꿈을 통해 나타나시는 예수님의 인도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신비스러운 보고들을 많이 접한다.

선교 부흥을 꿈꾸고 사역하는 사역자들은 주님이 마지막 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실 마음으로 수많은 영적 신비를 통해서도 일하시고 계심을 눈으로 보며 산다.



미주성결교회 남가주교역자회 총회가 열렸다. © 남가주교역자회 제공

성결교 남가주교역자회장에 김회창 목사 선출

미주성결교회 남가주교역자회 신임회장에 김회창 목사가 선출됐다. 이 단체는 교단 소속 지방회 가운데 미 서부 지역에 있는 3개 지방회인 엘에이지방회, 엘에이동지방회, 남서부지방회의 교역자들이 활동하고 있다.

3월 6일 LA에 있는 시온성결교회에서 열린 총회에서 회장이 된 김

목사는 엘에이지방회 소속으로 말씀새로움교회에서 시무하고 있다. 부회장 주신 목사는 엘에이동지방회 소속 미주새한교회, 총무 신용석 목사는 남서부지방회 소속 로고스라이프교회에서 시무하고 있다.

총회에 앞서 열린 예배는 김회창 목사의 인도로 시작돼 안신기 목사(한사랑교회)가 기도하고, 최재성

목사(남가주은혜로교회)가 성경봉독을 했다. 설교는 미주성결교회 부총회장인 이상복 목사(연합선교교회)가 “사랑의 십자가”란 제목으로 전했다. 이어 한국의 안보, 복음화, 교단과 교회, 교역자 가족을 위해 김성식 목사(토랜스우리교회)의 인도로 합심기도 했다. 축도는 송증복 목사(한빛선교교회)가 했다.



한인가정상담소가 LA에서 위탁가정 설명회를 열었던 모습. 한인가정상담소는 LA 동부 지역에서도 설명회를 연다.

“위탁가정 설명회에 초대합니다”

한인가정상담소(소장 카니 정 조)가 위탁가정 부모가 되기 원하는 한인들을 위해 LA 동부지역에서 한국어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 세미나는 오는 3월 25일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웨스트 코비나에 있는 선한정지기교회(담임목사 송병주)에서 열린다. 위탁가정이 되기 위한 자격 조건과 교육과정 등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자리다.

특히 이날 세미나에는 이미 위탁가정 자격을 갖춰 위탁자녀를 돌보고 있는 한인 부부와 과거 위탁가정에서 성장하여 현재는 성인이 된 여성이 직접 참석한다.

위탁자녀를 돌보고 있는 이 한인 부부는 위탁가정 시스템을 통해 돌보던 아이를 입양했으며, 지난해에는 중국인 아이가 위탁자녀로 이 부부 가정에서 머무르기도 했다. 부부는 위탁가정이 되기까지의 과정과 자신들의 경험, 위탁자녀들을 돌보면서 겪게 되는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들려줄 예정이다.

위탁가정 출신의 여성은 위탁자

녀가 될 수 밖에 없었던 자신의 불우했던 환경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많은 위탁가정 부모님을 만나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게 된 경험담을 소개할 계획이다.

이재인 동지찾기 프로그램 매니저는 “위탁가정 프로그램에 관심을 보여준 선한정지기교회의 제안으로 LA 동부지역 한인들을 위한 세미나를 교회에서 개최할 수 있게 됐다”며 “위탁가정에 관심이 있었으나 거리가 멀어 LA 세미나에 참석하지 못한 한인들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세미나에 참석하려면 예약해야 한다. (이재인 매니저 213-235-4868, jalee@kfamla.org)

지난해 12월 현재 LA 카운티에는 3만4847명의 아이들이 친부모와 살 수 없어 아동보호국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이중 아시안은 680여명, 한국계는 60~100명 가량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인가정상담소는 지난 2014년 위탁가정 프로그램인 ‘동지찾기’를 처음 시작했으며, 한인 어린이들만이라도 한인사회에서 보듬어 안아야 한다는 한인사회 관심 속에 현재 32가정이 위탁가정 자격을 갖췄다. 이 가정들은 한인은 물론 백인, 흑인, 히스패닉, 아시안 아이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를 제공했으며, 지난 2년 여간 12명의 아이들이 입양됐다.



당시 교회 예배당에 걸려 있었던 예수님의 그림

헤어라인, 정수리, 눈썹, 속눈썹 이식

19년 전통계승 • 11,000 sq. ft.의 넓고 럭셔리한 공간 • 7개의 전문 디비전 • 최신장비 보유 • 고객맞춤 시술로 높은 만족도

무이자
페이먼트
가능

마이크로 모낭단위 이식 (FUE)
3D모발이식 \$**1.40** 모발당 \$5

쫄쫄하고 자연스러운 PIN 이식방식

높은 생착률 • 흉터가 보이지 않음 • 짧은 회복기간 • 1회 5000모 이상 이식가능
0.60mm 가는 PIN에 머리카락을 장착하여 PIN과 함께 펀치 이식하여 조직 손상률이 적으며 쫄쫄히 이식되므로 재수술이 필요없어 원래의 풍성한 모발을 만들어줍니다. 또한 이식 시 상처를 덜 만들기 때문에 조직이 많이 붓고 두피가 딱딱해지는 것을 최소화시켜줍니다.

3개월만에 풍성해집니다!
발모클리닉

발모치료 10회(3개월)
FREE 올게닉 발모샴푸 2병
FREE 발모 S토닉 2병
FREE 닥터 수 처방전 (3개월치)

12개월 무이자 페이먼트
\$125 /월

무이자
페이먼트
가능

번거로운 지방이식, 쉽게 없어지는 볼륨주사 대신!
UP↑SEE

울퉁불퉁 들어간 곳엔 볼륨을! 쪼글쪼글한 피부는 탱탱하게!

UP↑SEE (1 bottle) +1000 \$600

UP↑SEE (1 bottle) + **파워 실 리프팅 1회** (턱선, 팔자, 이마 중 가장 심하게 처진 1 파트) 2000 \$1100

파워 실 리프팅 1회 (턱선, 팔자, 이마 중 가장 심하게 처진 1 파트) +1000 \$500

리프팅 스페셜 1월 31일까지!

수술없이 만드는 V라인과 처진 피부 탄력 UP!

1	뺨마지 1200샷(얼굴 전체+목) PRP 자가혈 1회	2200 \$1200
2	실리프팅 (턱선, 팔자, 이마 중 가장 심하게 처진 1 파트) PRP 자가혈 또는 백옥주사 1회	2000 \$1000
3	매직 리프팅 (얼굴 전체) 물광주사 1회	1500 \$800

지금 나에게 필요한 시술은?
피부탄력? 잔주름? 반짝반짝 동안피부?

\$500 +2000 1월 31일까지!
3D 리프팅+모공+잡티+주름
3D 리프팅 (얼굴+눈가+목) 2회
반도체 S Laser (모공축소) 2회
유연 줄기세포 (피부재생) 2회
ETP 영양집중 케어 2회
피부스케일링 2회

권사의 직무

디모데전서 5:4-16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본문 딤편 5:4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5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6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7 네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 받을 것이 없게 하라 8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9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 육십이 될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이었던 자로서 10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좇은 자라야 할 것이요 11 젊은 과부는 거절하라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12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심판을 받느니라 13 또 저희가 게으름을 익혀 집집에 돌아다니고 게으름 뿐 아니라 망령된 편론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14 그러므로 젊은 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휘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15 이미 사단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16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로 집지 말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니라

교회조직이 아직 미흡한 상황에 있었던 초대교회였기 때문에 그 당시 교회 제도적인 조직과 기능을 시도하면서 교회 터를 닦아가는 과정에 있어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기준은 교회 안에 혼자 살게 되신 분들이 말씀을 많이 피우고 다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11절에 보면 젊은 과부는 교회 중직으로 세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정욕을 앞세워 시집을 가고자 할 때 그를 직분자로 세운 것이 무색해지고 처음 믿음을 저버렸기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또 그들은 먹고 할 일 없는 사람처럼 교인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망령된 편론을 하며 일만 만들어 낸다 했습니다. 그러니 차라리 시집가서 아이를 낳아 그 가정을 믿음으로 잘 다스리게 하는 것이 낫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말쟁이들이 항상 문제입니다. 특히 이들이 직분을 가졌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들은 어느 곳에서나 한결같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장소와 시간에 따라 다른 내용을 전달합니다. 이런 말쟁이들은 자신도 영적인 소망을 결실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직분을 밧자해 실족시키는 폐단을 낳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는

이미 사단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직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았습니 다. 그런데 행동들은 꼭 마귀가 시키는 대로 나타나니 그것은 영적 소속이 마귀에게 속했다고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결혼하고 혼자된 과부들은 자녀교육의 성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편모습하에서 자라면서도 그 어머니께 효도할 수 있도록 잘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없는 가정이지만 하나님이 그 집의 가장이 되어 주시어서 그 가정을 하늘조건으로 보살펴 주신다는 것이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을 더 잘 가꿀 수 있기 위해서는 모든 세상조건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버려진 것 같은 입장이 지혜로운 신자라면 하나님 앞에 더 열정적인 신앙을 가꿀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되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는 것은 그저 세상 재미에 즐겨워하고 세월을 방탕하게 지내는 여자들은 육적으로는 살아 생동감있게 보이지만 영적인 상태로 보면 죽은 이들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혼자된 몸이라면 하나님 더 잘 섬길 수 있는 기회로서는 유익하다고 생각할 때 4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주야로 기도와 간구로 살아가게 됩니다. 일편단심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주님 더 잘 섬기자는 목적으로 일거리를 찾아가며 봉사하고, 헌신, 충성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8절은 구원을 얻었다고 하면서 누구든지 자기 친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합니다. 같이 사는 남편이나 아내, 사랑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복된 역사를 이루어주지 못했다고 하면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 육십이 될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이었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좇은 자라야 할 것”이라는 이 말씀이 곧 장로교회에서 세우는 권사의 자격 기준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하던 시대에는 나이 육십이 되어야 세상 정욕도, 세상을 향한 기대와 꿈도 포기하고 석양 길에서 오로지 영적인 소망만을 알차게 가꾸어 믿음 하나만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으로 인정해 줄 수 있겠다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을 교회 여성 지도자로 세울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권사는 권할 권(勸), 스승 사(師)를 사용하며 이들은 교리를 잘못 깨달아 신앙이 변질하거나 원래 믿음이 비뚤게 자라나는 사람

들을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찾아가서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권사를 세울 때는 이런 면을 유의하여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정절에 있어서도 한 남편의 아내인 자라야 합니다. 이것은 사회적으로 윤리, 도덕에 어긋남이 없는 사람이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선한 행실의 증거,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생활을 했다고 하는 증거, 자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한 사람이라야 권사 직분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와 함께 하는 남편도 믿음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는 권사뿐 아니라 장로, 안수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부인이나 남편과 믿음이 상합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직분 노릇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꼭 내외가 다 진리와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을 가지고 선한 일을 사모하며 하나님 섬기자는 사명감이 일치하는 부부라야 직분을 받아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권사들이 할 일은 나그네 대접을 잘해야 합니다. 나그네들을 대접하려면 우선 가진 것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권사가 되어서도 남들로부터 얻어먹는 신세라면 참으로 곤란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누군가를 권면한다는 입장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가진 것이 없어도 사명감이 간절하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권사들은 성도들의 발을 씻긴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이 물을 떠 놓고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베드로가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하시니 이에 베드로는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씻긴다는 것은 죄를 씻는다는 것입니다. 교인들 중에 말을 잘못하여 싸울 일이 생겼을 때 이를 타일러 서로 사과하게하고 없었던 일처럼 만들어 교회를 더욱 은혜 분위기로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성도들의 발을 씻기는 일입니다. 이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권사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자들이 권사가 되면 교회 안에 패당을 짓고 교회 안에서 행세하려고 합니다. 자기의 이권과 목적으로 당을 지어 교회 안에 어려움을 만들곤 하는데 이런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권사들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고 모든 선한 일을 좇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정리해 보면 자기 신앙이 진리를 올바르게 깨달아서 신앙주관이 정통하고 영적 체질 신앙이 생활로 선한 증거를 나타내 보일 수 있어서 교회 안에서나 자녀들에게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주를 사랑하고 영적인 소망을 갈망하는 간절한 신앙과 사명이 뜨거워져서 자신의 생명을 불태워서 희생하고 헌신, 봉사, 충성하는 기쁨을 목적으로 양무리들의 분이 되는 섬기는 신앙의 자질을 갖춘 사람이어야 합니다. 교리적으로도 다른 사람들의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 줄 수 있어야겠고 본인의 신앙이 이질적으로 비서서적이거나 비윤리적인 신앙을 가진 자에게 권사의 직을 준다면 그로 인해 슬한 양떼들의 신앙이 변질될 폐단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권사된 자들은 이 말씀을 명심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흠없는 자로 서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T V 한 국 방 송 설 교		한 국 신 문 설 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교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T V 미 국 방 송 설 교		라 디 오 미 국 방 송 설 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40 라디오 코리아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310 기쁜소리방송 FM91.5(SCA) AM1650 LA 미주 기독교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금요일 오후 2시30분
미 국 신 문 설 교			
기독일보	5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 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 성은복음선교회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리스장학생 모집

리스장학사가 커뮤니티의 미래와 함께합니다

리스장학사가 반이민 정책에 힘들어 하는 서류미비자를 비롯한 모든 한인 학생과 부모님을 위해 리스장학사와 같은 작은 기업들도 함께 응원하고 있다는것을 알리고자 장학금을 준비 했습니다.

목사님, 신부님등 사회지도자들의 추천장과 학생 본인의 현재 상황, 꿈과 희망을 담은 한글 자기 소개서를 아래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심사를 통해 선발된 학생에게 한 학생당 \$500, 20명에게 총 \$10,000의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접수자격

서류미비자를 비롯한 한인 학생

이메일접수처

HR@leesmortuary.com

접수기간

4월1일부터 5월30일까지

발표

6월 5일 개별 통보

지급일시

6월 10일 토요일 오후 5시

지급장소

리스장학사 City of Orange 본사

홈페이지

www.leesmortuary.com

최저가격 보장제

■ 유족과 같은 마음으로 리스장학사도 함께합니다. 하지만, 장례는 현실입니다
■ 지금은 무한 경쟁시대, 최소 10% 이상 더 저렴한 비용을 약속드립니다

무료출장서비스

■ 고인의 교회, 자택에서 장례식을 치루실 수 있도록 출장서비스를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 타 장의사의 채플비용을 절약하시면서 고인과 지인들에게 가장 편안한 장소를 선택하세요

사카고 스미스 코로란

185 EAST NORTHWEST HIGHWAY, PALATINE, IL 60067

아를란타 리장학사

4067 INDUSTRIAL PARK DRIVE NORCROSS, GA 30071

24시간 한국어 문의

(714) 469-1040

Fax (714) 333-4916 351 N Hewes St, Orange, CA 92869

Since 1966

리스장학사

Lee's Mortuary FD1164

1000대 동시주차 규모의 넓고 편리한 파킹 / 아름다운 채플 / 깔끔하고 안락한 분위기



담임목사 청빙

아가페 장로교회는 샌프란시스코 베이지역에 있으며 1976년도에 설립되어 PCUSA 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다음과 같이 담임 목사를 청빙합니다.

■**자격요건**

1. 정규신학대학원(M. Div.)을 졸업한 분
2. 5년 이상 목회경험(담임목사 또는 부목사)
3. PCUSA 소속 및 가입이 가능한 분
4. 미국에서 목회하는데 결격사유가 없는 분

■**제출서류**

1. 이력서
2. 졸업증명서(대학교와 M. Div.)및 목사안수 증명서
3. 자기 소개서
4. 목회 철학과 비전
5. 최근 1년 이내의 설교 2편(CD 또는 youtube link)
6. 추천서 2통(봉인)
7. 본인 및 가족 사진 각1매

■**제출기간** : 2017년 4월 16일(일) 까지

■**제출처** : Agape Church PNC

1250 – I Newell Ave #236., Walnut Creek, CA 94596
E-mail: apcpnc2017@gmail.com

■**기 타** : 제출서류는 우편과 이메일로만 접수합니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아가페 장로교회

www.agapepc.org

크리스천 자녀를 위한 **골프 교실**

저렴한 비용으로 골프와 성경공부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

***픽/업/가/능**

P.G.A Player Tour	(12~14살 1~2명 모집)
P.G.A Player Tour	(8~11살 1~2명 모집)

- Email : mrjacob601@hotmail.com
- 문의 : **최 제이콥 프로** T(310) 598-0746

Golf Studio 각종 골프클럽 최저가 판매
(Olympic 갤러리아몰 322호)



LA 예담교회 부설 다중지능 교육원

성격과 적성에 맞는 나 자신의 미래 직업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사람의 지문(Finger Print)은 태아의 뇌 발달 상태를 그대로 반영하여 형성됩니다.

지문(Finger Print)을 통해 선천적이고 유전적인 개인의 진로(전공)와 직업, 적성을 8가지의 다중지능(Multiple Intelligence)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집단상담(Group Counseling) 개인상담(Personal Counseling) 진로 직업적성검사(Mi test) 문의 (323) 559-0070 상담학 박사과정

LA예담교회 1134 S.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20

***전도사님을 찾습니다.**

(최 제이콥 목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New Bridge University Golf Management
The Reformed University 대학원
Dea Han Theological Seminary U.S.A 신학박사
LA 예담교회 담임목사



선교하는 예수 공동체
Jesus' Community in Mission

www.cincijangro.com

담임목사 청빙

신시내티 한인 장로교회 (KCPP)에서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참되고 진실하며, 영성, 인성,그리고 지성을 갖추신 선교 지향적 담임목사님을 청빙합니다. 신시내티 한인 장로교회는 1975년 창립 되어 미국 장로교(PCUSA)소속으로 '선교하는 예수 공동체'라는 비전으로 온 성도가 신앙과 생활의 일치를 위해 성경적인 삶을 지향하는 교회입니다.

■**지원 자격**

1. 미국 장로교에 가입되어 있거나, 가입에 결격 사유가 없으신 분
2. 신학대학원(M. Div.)를 마치고, 5년 이상의 목회 경험에 있으신 분
3. 한국어와 영어 사용으로 이민 목회에 불편이 없으신 분

■**제출 서류**

1. 이력서
2. 졸업 증명서(대학교와 M.Div.) 및 목사안수 증명서
3. 자기 소개서(신앙고백, 목회 경험, 성장 배경, 가족 사진, 사모와 자녀 소개)
4. 목회 철학과 비전
5. 3인의 추천서 및 5인의 Reference 이름과 연락처(주소, 전화번호와 이메일)
6. 최근 1년 이내의 설교 2편(CD또는 youtube link)

■**서류 제출 마감일** : 2017년 4월 30일(일) 소인까지

■**제출처**

1. Korean Presbyterian Church of Cincinnati (신시내티 한인 장로교회)
Pastoral Search Committee
5178 Steeple Chase Ct, Guildford, IN 47022
2. Kpccsteam2017@gmail.com

■**기타 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반 우편과 이메일로만 접수합니다.
2.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된 분에게는 개별 통지합니다.

신시내티 한인 장로교회

담임목사 청빙 위원회

최근 한 후 참변을 당한 어느 자매의 어머니가 눈물의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약 3,000명의 사망자 가운데서 많은 성도가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의 원전파괴로 말미암은 희생자 중에서 기독교인은 꼭 빠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2차 대전과 한국전쟁의 불구덩이에서 신자들은 끝까지 모두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고와 사건들은 신자 불신자를 막론하고 무차별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거기서 돌아가신 성도를 우리는 심판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환란 가운데서 돌아가신 분을 우리는 저주받았다고는 더 더욱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환란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면서 순교한 분들을 우리는 “영적 전쟁의 승리자”라고 존경합니다. 정치적 압제에서, 이데올로기적 심판에서, 구원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선교지에서의 순교를 우리는 실패가 아니라 거룩한 성공이라고 존중합니다. 천사가 내리는 심판의 나팔 속에서 성도가 전 지구적인 재난과 환란을 당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그 성도 안에 살아 있다면 그가 죽는 것도 유익할 것입니다(빌 1:21).

재앙은 악인에게만 내리는가

심판에 대한 설교를 들으신 성도님들 중 여러분이 “재앙은 악인에게만 내리는가” 질문을 해오셨습니다. 참 좋은 질문이고 마땅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다시 바꾸면 “모든 신실한 성도는 재앙으로부터 제외 되는가”입니다.

악인이 심판을 받고, 선한 사람은 마땅히 구원을 받는다는 인식은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 상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한꺼번에 심판하지 않으심이 성경의 주된 가르침입니다.

계시록의 종말에 속한 재앙, 인의 심판, 나팔 심판 그리고 대접 심판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 144,000은 온전히 구원을 받습니다. 아울러 ‘흰 옷 입은 무수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도 마땅한 논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음”이 “환란을 벗어나거나 환란을 겪지 않는다”로 생각하면 심각한 오해가 발생합니다. 성도가 구원받는다를 것을 ‘종말의 환란을 통과하지 않는다,’ ‘종말의 환란에서 제외된다,’ ‘세상이 심판받을 때 공중에서 3년 반 동안 휴거상태에 있다,’ ‘성도는 고난을 받지 않는다’ 등으로 생각하는 것은 구원을 잘못 해석하는 데서 오는 생각이라 여겨집니다.



민 중 기 목사

충현선교교회

성경에서 구원 받은 신실한 성도들이 고난을 받는 예는 무수합니다. 욥의 고난, 다니엘의 환란, 사도들의 순교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구원이 종종 불같은 시련과 고난을 동반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도들이 큰 환란을 통과하여 나온다”(계 7:14)는 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환란을 통과하면서 죽을 고생을 하는 사람도 있고, 실제로 환란 가운데서 죽는 사람도 생길 것입니다. 심지어 성도들도 천재지변의 희생자가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2001년 9월 11일 뉴욕의 세계무역센터가 무너질 때, 모든 성도는 거기서 깨끗하게 빠져나와 구원을 얻었다고 장담하여 말할 수 없습니다. 새벽기도를 하고 그 빌당으로

나이가 들어가는 기쁨



강 준 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를 따라다닙니다.

둘째, 평생 학습하는 어른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배움이 주는 기쁨을 맛보아 알고 있습니다. 지적인 즐거움이 얼마나 복된 것임을 맛보아 알고 있습니다. 배움은 거룩한 쾌락입니다. 배움이 중요한 까닭은 배움을 통해 늘 꿈꾸는 어른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우는 사람은 미래 지향적인 사람입니다. 그런 까닭에 배우는 사람은 꿈 너머 꿈을 꾸는 사람입니다. 늘 꿈을 꾸며 배우는 사람은 영원한 청춘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셋째, 경건하고 거룩한 어른이 되고 싶습니다. 경건과 거룩은 한 형제입니다. 하나님은 경건하고 거룩한 부모를 통해 자녀들을 축복하십니다. 거룩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부어 주셔야 합니다. 거룩은 인간적인 노력이나 율법적인 고행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물론 거룩을 갈망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성화에 이른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넷째,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남기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를 키우고 제자를 남기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남은 생애를 더욱 사람을 키우고 남기는 일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빠르게 지나가는 세월을 아껴야겠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남은 생애라도 후회 없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이 들어가는 부족한 종을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해갈과 여유



김 한 요 목사

베델한인교회

기가 되어 있는 페이지들을 보면 흐릿한 마음으로 받았던 은혜를 기억해 냅니다. 하얀 여백을 보면 성경을 공부하며 어떤 은혜가 기록될지 기대로 설렙니다. 제 마음에는 은혜가 머물 여백 만큼이나 기대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은혜의 말씀이 심령에 쌓이면, 제

성경책처럼 삶에 여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백은 단순한 공백이 아닙니다. 푸르른 하늘에 몇 점 떠 있는 구름이 하늘의 여백을 알려주듯이 먹구름 같은 인생의 고비들이 오히려 푸르른 하늘을 볼 수 있는 여백을 느끼게 해줍니다. 은혜받은 자들만이 아는 여백입니다. 때론 폭풍 치는 힘든 고난을 통과하며 항해하지만, 망망한 바다의 여백을 보는 시야를 얻게 되는 은혜라 할 수 있습니다. 고난 때문에 좌절되지 않고, 삶의 여유를 갖는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퍼부어주시는 해갈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한없이 넓은 창공을 나르며, 푸른 하늘을 돋보이게 하는 구름도 즐기는 삶의 여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활성산소 제거? 해답은 수소수!

좋은 물을 마시면 우리의 건강이 좋아집니다

노화를 촉진하고 세포와 DNA를 공격하여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 병들의 원인이 바로 활성산소(독성산소, Free Radicals)이며, 수소는 그런 활성산소와 결합하여, 우리 몸에서 부작용이 전혀 없는 물로 변환되어 우리 몸의 활성산소를 제거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수소의 역할

- 대표적 활성산소인 하이드록시 라디칼과 결합해서 몸에서 배출
- 체내의 염증을 제거하여 통증을 완화
- 미세분자상태로 체내의 모든 부분, 심지어 뇌까지 도달되어 활성산소를 제거

본 수소수기의 특징

- 1) 2중 역삼투압 방식에 의한 순수한 원수를 바탕으로 고농도(800~1,000ppb)의 수소수를 생성하며, 물의 성질은 우리 몸에 가장 적합한 약알칼리 상태가 됩니다.
- 2) 대용량 필터를 사용하여, 깨끗한 물을 생산한 별도의 전해조에서 생산된 수소가스를 우리가 음용하는 물에 가압하는 침탄방식으로 즉시 물을 드실 수 있고 오랜기간을 사용해도 수소가스의 농도가 유지됩니다.



시금치 90다발 바나나 1512개 사과 1032개 당근 76개 큰호박 7개



일본의 시타마대학교의 하타나 가즈미 박사의 연구에 의하면, 수소농도 1,000ppb의 경우에 베타카로틴 함량 기준으로, 위와 같은 양의 항산화 물질을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일반 항산화 물질은 들어갈 수 없는 뇌 속이나 깊은 장기의 미세조직까지도 수소는 도달될 수 있으며 도달된 수소는 활성산소들을 물로 변환시키므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프랑스 “루르드 샘물”
독 일 “노르데나우 샘물”
멕시코 “트라코테 샘물”

세계 3대 샘물의 비밀

기적의 수소수를
가정에서 드세요!

수소수 무료 제공!
깨끗하고 건강한 물 트러쉬 오세요,
한국의 **에네스티 PLUS**에서
생산된 우수한 제품입니다.

CTP 100
\$1,390 +Tax
- 1년 필터교환 무상
- 냉, 온수 수소수기



가장 강력한
항산화 물질
GSPH 100
\$2,990 +Tax
- 1년 필터교환 무상
- 냉, 온수 수소수기



수소 보틀(1병) 구입시
에네스티 핸드크림 2개 Free
(12월 상당 시은품)

공짜

■ 환원력이 뛰어난 수소가 생성되는 보틀

[제품특징]

- *스테인레스 필터를 통해 입차, 티백, 천연차 등 다양한 음료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 *적정사용온도 : 친환경소재와 제품 변경 방식을 위해 -20도~100도 사이에서 사용을 권장합니다.
- *심플한 디자인, 친환경 트라이탄 소재로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높은 휴대성으로 여행, 스포츠, 레저 등은 물론 일상에서도 편리합니다.

1병 \$95.00 \$65.00 +TAX

특별 이벤트

PRO-Z USA에서는 그동안 여러분들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특별 이벤트를 실시하오니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소중한 분들에게 선물하세요

한병 더

절호의 찬스

지금 구매하시면!
3병 + (1병 Free)
\$267 +Tax



※ 가까운 약국이나 건강식품점에서 구입하세요!

프로지 골드

PRO-Z GOLD



당뇨! 당뇨는 원인치료가 해답입니다!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PRO-Z GOLD**



방송인 송해 선생님의
건강지킴이, 프로지골드

당뇨병의 원인

아연은 우리 몸의 대사작용을 하는 필수 미네랄로 인슐린의 저장 및 분비에 필수적인 성분입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분비 기능이 저하되어 당뇨병을 유발하게 됩니다. 인슐린의 저장성을 낮추어 분비된 인슐린이 제 기능을 하도록 도와줍니다.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과 식후 혈당 상승 억제 기능이 강화되었습니다.

BAJA CALIFORNIA NATURAL SEA SALT



바하 캘리포니아 소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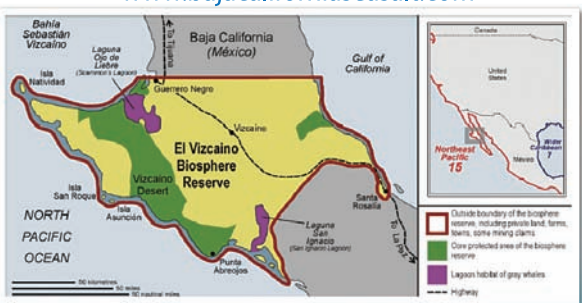
바하 캘리포니아 소금의 특징

- 최적의 생산조건에서 생성된 순도 99.70%의 미네랄소금
- 중금속 0.001% 청정 천일염
- 간수 제거된 건강 천일염
- 다년간 생산과정을 거친 최상급 천일염
- KA-Kosher 인증 천일염

바하 캘리포니아(BAJA CALIFORNIA) 염전의 특징

- 청정해역에 위치한 깨끗한 구역
- 적은 강수량 (50mm/년)
- 강한 일조량 (2M/년)
- 년 평균 기온 (18~22°C)
- 강한 바람

www.bajacaliforniaseasalt.com



UNESCO's El Vizcaino Biosphere Reserve

성분분석 및 인증서
바하캘리포니아 천일염은 기존의
호수 수입 천일염 및 국내 천일염과
비교하여 천일염의 기능과 소비자의
선호도 또한 우수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20 1봉지

건강한 피부의 시작
에네스티 화장품

enesti



이제 물에서도 당당하게!

Enesti UV/CUT SUN/BLOCK
에네스티 유브이 컷 썬블럭
워터 프루프/자외선 차단 기능성 화장품
(메이크업 베이스 겸용
SPF 50+ PA+++ (40ml)
\$8.00 + tax

촉촉! 시어버터 핸드크림



PROTECTION FROM UVA, UVB WATERPROOF ANTI-SHINE EMULSION
Enesti 샤르르~ 시어버터 촉촉 매끈 핸드크림
초고보습 시어버터 함유 Softening and moisturizing
Net wt. 50g
\$6.00 + tax

문의 **213.434.1170**

www.prozusa.com / prozusa1@gmail.com
621 S. Virgil Ave, Suite 100, LA, CA 90005

PRO-Z USA Inc.
프로지 유에스에이

“신학은 원어 교육에서 시작해야 한다”

미드웨스턴침례신학교 박성진 학장 인터뷰

구체적인 통계를 들지 않더라도 현대 교회가 각종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그리고 결국 이런 위기들은 교회 지도자들과 또 그들을 양성하는 신학교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에도 대다수가 공감할 것이다. 미국의 한인 신학교육이 처해 있는 문제는 무엇이며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본지는 미드웨스턴침례신학교(mbts.edu)의 박성진 학장과 이 문제를 놓고 두 번째 대화를 진행했다. 지난 대담이 신학교 그 자체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면 이번에는 신학교에서 이뤄지는 원어 교육에 초점이 맞춰졌다.

미드웨스턴의 아시아부 학장을 맡아 한국과 아시아의 교회 지도자들을 양성하고 있는 박 학장은 미국 최대 교단인 남침례회(SBC) 6대 신학교의 학장들 가운데 유일한 한인이기도 하다. 그는 달라스신학교에서 신구약학으로 Th.M. 학위를 받았고 히브리유니언칼리지에서 고대근동학과 비교셈족언어학으로 M.Phil.과 Ph.D. 학위를 받았다.

“성경 원어 교육이 왜 중요하다고 보는가?”

목회자에게 있어 영적, 도덕적, 지적 자질은 매우 중요하다. 이중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로서 저는 목회자의 지적 자질 문제에 대해 통감하지 않을 수 없다. 목회자에게 지적인 자질이 부족하다고 함은 한 마디로 말해서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고 설교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신학교육은 주경신학, 조직신학, 역사신학, 실천신학 등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 핵심은 무엇보다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능력을 함양하는 중심에는 원어 교육이 자리잡고 있다. 신학교는 학생들이 신구약 각 권의 석의적 논의를 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하며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해 역사적, 문화적, 문학적, 복음적 시각에서 해석할 수 있도록 바로 가르쳐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원어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좋은 목회자는 바른 주석가여야 한다.

어느 잡지에서 읽은 기사다. 한 캐나다인이 영어로 번역된 김소월의 시를 읽다가 마음에 전혀 와 닿지 않아 한국어로 이해하고 싶어 한국어를 공부하러 왔다. 그 외국인이 몇 년 후에 김소월의 시를 한국어로 읽었을 때 마음에 다가오는 감동은 정말 엄청난 것이라고 고백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번역된 한국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으로 읽고 이해하는

것과 원어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것과는 천양지차다. 언어란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간의 소통의 단계를 뛰어넘어 언어 행위 저변에 흐르는 의식과 세계관, 그리고 문화를 공유하는 능력을 부여한다. 원어 교육을 통해 성경이 쓰여진 당시의 사람들과 소통할 뿐 아니라 그들의 삶의 정황 속에서 문화의 의식을 공유하게 된다. 이것이 바른 성경 해석의 출발점이다.

“요즘 신학교육은 묵회에 직접 적용되는 실천적 과목이 늘고 원어 과목은 줄어드는 추세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 보는가?”

최근에 우리 학교 박사 과정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성적증명서를 보면 이전과는 달리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조금 단계만 이수했을 뿐 중급과 고급 단계까지 공부한 학생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 미국의 유수한 신학교도 히브리어나 헬라어 수업을 줄이고, 대신 실천신학 과목을 늘리는 추세인데, 이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미국식 실용주의가 신학교육에 준 영향일 수도 있다. 실천신학은 매우 중요한 분야이지만 실제적 사역의 근거 역시 바른 성경 해석에서 나온다. 토대를 견고하게 하지 않고 기둥을 쌓는 것은 사상누각이다. 장기적으로 볼 때, 한인 신학교육에서 원어 교육을 빼면 목회자의 질적 향상은 요원하다.

“원어 교육이 부실할 경우 목회 현장에서 발생할 만한 문제는?”

원어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 목회 현장에서 성경을 제대로 해석할 수 없는 비극이 발생한다. 다른 주석가나 설교자의 의견을 참고해서 설교를 할 수는 있어도 원어를 바탕으로 하는 본인 자신의 견해는 제시할 수 없다. 원어 교육의 목적은 제대로 된 번역을 하기 위함이 아니다. 올바른 해석을 위한 전제다. 언어는 통합적인 체계이기에 단지 문법만을 배웠다고 올바른 해석을 할 수 없다. 예로, 우리말에 “쓰다,” “기술하다,” “서술하다,” “진술하다”란 단어들을 보면 이들은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상황에 따라 미묘하게 달리 사용되고 있다. 이와 비슷하게 원어에서 단어의 의미가 각 상황에 따라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지를 모르면, 해석에 큰 오류가 생긴다. 예로, 헬라어로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형제 간의 사랑은 필레오라고 알고 있지만, D. A. 카슨은 신약에서 이 두 단어의 의미는 서로 교차된다고 말한다. 즉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구절에 필레오도 사용되

며, 형제 간의 사랑을 말하는 구절에 아가페도 등장한다는 말이다. 이는 그 당시에 이 두 단어의 의미의 범주가 많이 중첩됨을 보여주는 것이다. 아가페가 하나님의 사랑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알면 본문 해석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와 같이 원어를 공부하면 목회자들은 바른 해석을 위한 기초에 선 것이다. 이는 개인 말씀 묵상 때뿐만 아니라 성경공부를 인도할 때도, 설교를 준비할 때도 매우 유익하다.

“요즘은 원어를 배우지 않아도 성경의 원 뜻을 가르쳐주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나 주석들을 접하기 쉽다.”

마일스 반 펠트나 게리 프랙티코 교수는 빈도수가 높은 641개의 히브리 단어만 알면 구약 본문의 80%를 읽고 해석할 수 있다고 학생들을 설득하지만, 해석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해는 할 수 없는 것이다. 원어를 공부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언어 공부에서 지름길이란 없다. 언어란 투자한 시간만큼 효과가 나오기 때문이다. 물론 어떻게 공부하느냐에 따라 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다. 조금 헬라어와 히브리어 문법을 공부하는 것으로 그 언어를 활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갈 수는 없다. 중급 과정에서 구문론(syntax), 의미론(semantics), 그리고 본문비평(textual criticism)을 배우고 시대에 따른 단어나 구의 의미 변화를 배워야 해당 원어에 대한 맛을 본 것이다. 그 후에야 석의가 가능하기에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하지만 이런 노력의 시간이 지난 후에는 평생에 걸쳐 성경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값진 재원이 생기는 것이다. 전 재산을 팔아 귀한 보화가 감추인 밭을 사는 신약의 예화처럼 원어 연구의 귀함을 깨닫는 사람들은 시간을 투자해서 그 귀한 보화를 본인 품에 체화시켜야 한다.

요즘에는 성경 연구에 도움을 주는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많은 주석들이 많다. 하지만 원어 교육을 받고 이런 자료를 사용하는 것과 원어에 대한 지식이 없이 이런 자료를 사용하는 것은 자료 활용도에 있어 매우 차이가 난다. 원어 교육을 받으면 비평학에 대한 기본적인 사고를 하게 되기에 시중에 나와있는 주석을 비판적, 선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된다.

대부분의 종교개혁가들과 청교도 신학자들은 원어에 탁월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어렸을 때부터 원어를 학습해서 매우 능통했고, 칼빈 역시 원어에 능통한 매우 탁월한 주석



박성진 학장은 신학에 있어서 원어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가요, 신학자였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

“원어를 공부하는 데 실제적인 조언을 준다면?”

언어는 언어답게 공부하라는 것이다. 원어를 배우고 싶은 학생이 많아도, 너무 어려우면 도중에 좌절하고 포기한다. 이런 점에서 많은 신학교는 원어를 잘못 가르치고 있다. 문법 위주로 배운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계속 사용하지 않는 이상, 수업 후 3개월이 채 되지 못해 전부 잊어버린다. 특히 히브리어는 읽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히브리어에는 다양한 강세가 존재한다. 이 강세들의 목적이 단지 어떤 음절을 강조하는 것뿐이라면 다양한 강세가 존재할 필요가 없다. 다양한 강세는 히브리어를 어떻게 리듬을 살려 읽는가에 도움을 주기 위해 존재한다. 유대인도 이 강세에 맞추어 히브리어 본문을 읽는 훈련을 어렸을 때부터 한다. 신학교에서 히브리어를 가르칠 때는 읽는 훈련 위주로 해야 한다. 강세의 조절에 따른 리듬을 타며 정확하게 읽는 훈련을 많이 해야 한다. 특히 시 문학은 이렇게 읽어야 히브리어 본문의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다. 그 후에 많은 본문을 읽는 가운데 발견되는 공통적인 문법적 특징을 공부해야 오래 기억에 남고 언어가 주는 음성학적, 음운론적, 운율적 뉘앙스를 느낄 수 있다.

한때 원어를 쉽게 배울 수 있다고 해서 유명해진 원어연구소가 있다. 나도 미국에 오기 전에 이곳에서 3개월 정도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배웠다. 주로 명사형이나 동사형 어미의 패러다임을 쉽게 외워서 어떠한 명사나 동사가 나오더라도 기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해주었다. 그 결과, 신학교에서 조금 헬라어와 히브리어 수업을 들었을 때, 미국 학생들은 나를 언어 천재로 착각할 정도로 감탄을 마지 않았다. 하지만 단계가 올라갈수록 언어학적인 측면

이 강조되면서 기계적으로 암기한 패러다임은 오히려 독이 되었다. 형태학적으로 분석이 가능했지만, 강세의 변화가 왜 생기고 강세 변화에 따른 모음의 변화에 대해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이런 형태적 변화는 본문을 많이 읽으면 자연스럽게 쉽게 알 수 있는 문제였는데 말이다. 원어는 언어답게 배워야 언어로서의 고유한 특징을 파악할 수 있고 오래 지속된다.

“성경 원어에 관심을 갖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

성경번역선교회에서 사역을 한 적이 있어서 원어 공부에 관심이 많았다. 신학교에서 신구약 과목만 60학점 정도 들었을 정도로 원어와 해석학을 집중해서 공부했다. 하지만 서구의 방법론에 바탕을 둔 원어 공부의 문법적이고 해체적인 측면이 강해서 마치 해부해 모든 내부 기관을 본 후에 봉합한 개구리가 죽어있는 듯한 한계성을 많이 느꼈다. 성경 말씀이 살아 움직여야 하는데, 분석 과정을 거쳐 종합을 했는데도 살아나지 못한 채 죽어있는, 바로 그 절망감을 말이다. 그래서 택한 방법이 종합적이 아니라 총체적이고 통합적인, 유기체적 방법론이다. 비유로 말하면, 개구리를 아는 방법은 해부하는 것만 아니고, 환경 가운데 두고 무엇을 먹는지, 언제 자는지, 다른 동물들과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관찰하는 법도 있다. 성경의 언어를 셈족 언어라는 환경 속에 두고 이 언어가 어떻게 다른 셈족 언어와 반응을 했고 이스라엘 종교와 문화를 전달하는 매개체로서 히브리어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고대 성경의 저자들은 어떤 언어적, 문학적인 요소를 사용해서 히브리 문학을 표현하고자 했는지 등을 연구하는 데 관심을 갖게 된 것이다. 이 방법론을 통해 언어를 언어답게 배워야 함을 알게 되었고 보다 총체적인 접근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김준형 기자



Spring Cleaning
SALES EVENT

이제, 제임스 박은 엘몬테 윈 현대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미국 최고의 워런티
10년 19만 마일



2017 Hyundai Elantra SE – Lease for only \$129 per month plus tax

1 at this offer 36 month closed end lease on above average approved credit. \$1,995 cash or trade equity due from customer plus \$2,000 Lease Cash (must finance through Hyundai Motor Finance) plus \$500 Sales Event Cash equals \$4,495 total drive off. No security deposit. Lease responsible for excess wear and tear and mileage at 20¢ per excess mile after 30,000 total miles. Based on above average credit, not all customers qualify, see dealer for details.



2017 Hyundai Sonata – Lease for only \$149 per month plus tax

1 at this offer 36 month closed end lease on above average approved credit. \$1,995 cash or trade equity due from customer plus \$3,250 Lease Cash (must finance through Hyundai Motor Finance) equals \$5,245 total drive off. No security deposit. Lease responsible for excess wear and tear and mileage at 20¢ per excess mile after 30,000 total miles. Based on above average credit, not all customers qualify, see dealer for details.



다른 Dealer 가격을 가져오시면
어떤 가격이라도 Beat 해 드립니다
*자세한 문의는 제임스박에게 전화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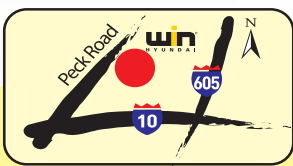
James Park 213.839.3332

“Broker Deal 환영합니다”



www.winhyundai.com
3462 N. Peck Rd., El Monte, CA 91731







과거 연세대에 걸렸던 동성애 관련 현수막

“신대원에서조차 동성애 비판하지 말라니”

인권위 ‘대학원생 인권장전’ 동성애 인정 강요

한국교회언론회가 전국의 각 대학 대학원생들에게 ‘인권장전’을 만들라는 공문을 발송한 국가인권위원회를 성토했다는 논평을 3일 발표했다. 인권위는 지난 해 12월 초 대학원이 있는 전국 182개 대학에 공문을 발송했다.

‘대학원생 인권장전’을 만들라는 해당 공문에는 ‘인격권 및 신체의 자유권 보장’ 항목에서 ‘성 정체성, 성적 지향을 이유로 비하하는 말을 들었다’는 것을 인권침해 사례로 언급, 사실상 동성애를 지지하고 있다. 물론 이는 성적지향(동성애)과 성 정체성(트랜스젠더)에 대해 차별하지 말라는 국가인권위원회법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교회언론회는 “이들 대학 중에는 신학대를 비롯해 기독교 정신으로 설립된 대학이 48개교나 된다”며 “공문에 의하면 ‘대학원생 인권장전’과 ‘인권전담기구’를 설치하고, 교육부장관에 대해 대학원생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이 공문을 받은 후 90일 이내에 이행

계획을 세우거나 불이행 사유를 제출하라고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학원생 인권장전이 만들어지면, 교수와 학생 간에 동성애나 동성애 행위에 대한 건전한 비판을 할 수 없고, 그러므로 제대로 된 강의와 학문·연구 활동을 못하게 된다”며 “이는 국민의 기본권인 헌법에 보장된 표현, 양심, 학문, 신앙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교회언론회는 “이는 가장 학구적이고, 비판적이고, 민주주의 사회의 핵심인, 양심과 학문의 자유 가운데 학문을 연구해야 하는 대학원생들의 활동을 제한하는, 독재(獨裁)에 가까운 것”이라며 “대학들은 이렇듯 인권위의 횡포에 굴하지 말고, 오히려 잘못되고 문제 있는 사회적 현상에 대해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을 할 수 있어야 하며, 그리하여 학문과 양심의 자유가 실현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대웅 기자



국가조찬기도회가 진행되고 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

제49회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3,500명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 땅을 회복하여 거룩하게 하소서(호 6:1)’라는 주제로 서울 삼성동 코엑스 D홀에서 개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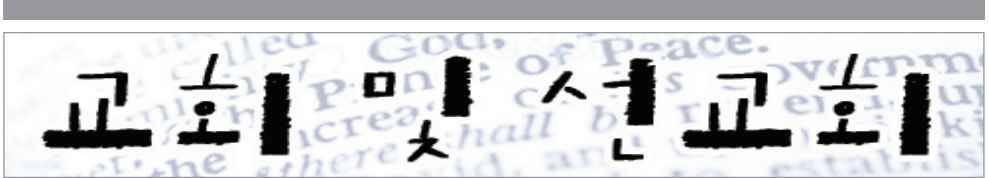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입장으로 오전 7시 30분경 시작된 기도회는 체의 송장로(국가조찬기도회 회장) 사회 아래 홍문종 의원(국회조찬기도회 회장)의 개회사, 김진표 의원(국회조찬기도회 부회장)의 개회기도, 정근모 장로(국가조찬기도회 중경회장)와 이광자 부회장(국가조찬기도회)의 성경봉독, 솔리데오텍장단, 이산장로합창단, 의정부장로합창단의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특별찬양 후 정성진 목사(거룩한빛광성교회)가 설교했다.

‘사랑에 옥여썸을 당할 때시 3:1-8, 고후 4:8-10)’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정목사는 “지금 우리나라의 형국이 사면초가의 위기에 놓여 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와 같이 사랑에 옥여썸을 당할 때가 있다. 아무도 도울 이 없고, 사랑에 조종하는 무리와 손가락질하는 수많은 적들에게 둘러싸일 때가 있다”며 “이 때가 하나님을 만날 절호의 기회인 것을 기억하자”고 권면했다.

설교 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축사를 전했다. 그는 “국가조찬기도회에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나라와 국민을 위해 기도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한국교회는 확고한 믿음을 생활의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수많은 시련을 극복하고, 산업화와 민주화의 기적을 통해 세계 속에 우뚝 서게 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인사했다.

황 권한대행은 “지금 우리나라 안팎의 상황은 아시는 바와 같이 매우 엄중하다. 북한의 위협, 급변하는 국제 정세, 대내외 경제의 불확실성, 저출산과 고령화 등 시급히 대응해야 할 여러 과제들이 산적해

이대웅 기자



LA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20
주일학교 오전 11:20
영성, 청년부 예배 오전 11:20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깨우고 이만사를 책임지며, 이만사정치를 하며, 선교영광을 순종하는 교회
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주중연락처 T. (213) 386-2233

주일에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 - 토)
수요기도회 오후 7:30

장태원 담임목사

LA세계선교교회
선교를 통해 행복한, 사랑의 공동체
1025 S Catalina St, Los Angeles, CA90006
T.(213) 909-6473 / www.missionla.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30
3부예배 오후 12:45
금요기도회 오후 7:00

강진웅 담임목사

갈보리믿음교회
피난처 피사는 예수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제자들의 공동체
33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

1부예배 오전 7:4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45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새운 뜻을 이루아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00
한여침년부 오후 1:30

서건오 담임목사

나성서부교회
영적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 복음을 전하는 교회,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교회
1218 S. Fairfax Ave., LA, CA 90019
T. (323) 939-7323 / www.kwpcla.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1:00

김문수 담임목사

나성제일교회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주일예배 오전 10:3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교회학교 주일 오전 10:30

김경렬 담임목사

산타모니카교회
죽도록 섬기는 교회
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 (310) 502-9999 / www.smkc.us

주일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주일오후 12:00
토요일복합 모임 오전 11:00

김영구 담임목사

나눔장로교회 엔키아 선교교회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
3407 W. 6th St. #412, Los Angeles, CA 90006
T. (310) 404-6219

1부예배 오전 09: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20 (월-금)

김중호 담임목사

에향선교회
복음의 향기로 지역과 열방을 섬기는 교회
4323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9
T. (213) 281-1196 / E:isaacdeew@hotmail.com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류종길 담임목사

임마누엘선교회
행복한 성도,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1818 S. Western Ave., #200, Los Angeles, CA 90006
T. (323) 766-9922 / www.laimch.com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이명수 담임목사

청운교회
선교에 초를, 성도, 성령의 초를, 바른교회관의 초를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주일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213) 321-4433

주일감사예배: 주일 오전 11:00
수요성경공부: 저녁 8:00
금요성경집회: 저녁 8:00
교회학교(Child Youth): 매주 주일 오전 11:00

강양규 담임목사

남가주 새인약교회
성령에서 이끄시는 교회
3407 W. 6th St., #601, #620, LA, CA 90020
T.(213) 465-9693, (213) 434-1083 www.new2011.org

주일예배 오전 11:20 2부예배 오전 11:20
3부예배 오전 11:20

연제선 담임목사

LA 온하늘교회
1540 S. St Andrews Pl., Los Angeles, CA90019
T.(818) 983-9024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회
함께웃고 함께우는 공동체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hc.com

주일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7:00
3부예배 오전 7:00
매일 성경통독 (월-토) 오전 7:00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1508 S. Vermont Ave., LA, CA 90006
T. (213) 272-6031

주일예배1부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박영천 담임목사

나성동산교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
2525 W. James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
T. (213) 487-3920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7:00

박현성 담임목사

나성열린문교회
하나님나라의 비전을 실현하는 교회
3281 W. 6th St., LA, CA 90020
T.(213) 383-2600, (213) 383-2602 / laopendoor.org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정우성 담임목사

남가주광염교회
말씀과 기도로 비사하는 은혜공동체
1153 Valencia St., Los Angeles, CA 90015
T.(213) 598-0191

1부예배 오전 0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조인수 담임목사

써니사이드교회
하나님을 기쁘게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예수 안에서 행복의 공동체
1183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9-0691 / F. (213) 389-0694

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6:00

김요섭 담임목사

열매교회
전도하는 교회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323) 737-3009 C. (213) 215-8523

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30

정장수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깊은 말, 마음, 몸, 열매
3250 Wilshire Bl., #160, Los Angeles, CA 90010
T.(213) 387-1700 C.(213) 500-4737 / olympic-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30
3부예배 오전 6:00 (월-토)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성령으로 사랑받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교육부 오전 11:30

민종기 담임목사

충현선교회
불러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818) 549-9191 / F.(818) 549-9199 / choonghyun.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7:30

강지원 담임목사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성도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읽는 90일 성경일독
오늘 성경 읽으셨나요?

대표 주해홍 목사

에스라성경통독사역원
Ezra Bible Reading Ministry
1661 Raymond Ave. #265, Anaheim, CA 92801
www.ezrabiblereading.com

LA 동부, 팜스프링스 지역, 라스베가스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4부예배 오후 1:00, 금요일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30

고태형 담임목사

선한목자교회
선포하고 가르치는교회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 (909) 591-6500 sunhan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영아예배 오후 1: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이희철 담임목사

갯스윌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주일오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New Hope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50 S. Rosemead Blvd., Pasadena, CA 91107
T. (626) 872-2405 교회, (503) 332-1941
www.newhopechurchla.com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15
3부예배 오전 11:45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박신철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15
3부예배 오전 11:45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박신철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
3부예배 오전 11:45
영아예배 오전 10:00

이훈준 담임목사

창대교회
하나님께 영광!

3630 N. "E" ST., San Bernardino, CA 92405
T. (909) 388-294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0:00

신용환 담임목사

나성한미교회
축복의 통로되어 만물을 새롭게 하는 십자가 공동체

2727 N. Durfee Ave., El Monte, CA 91732
T. (626) 444-0058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0:00

이준준 담임목사

조용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사우스 베이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훈련 오후 2:0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 7:30

이상훈 담임목사

주비전교회
하나님 마음으로 열방을 열자

1626 W. Gardena Blvd. #D, Gardena, CA 90247
T. (714) 296-6783 www.sbhvision.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김준식 담임목사

남가주샬롬교회
Shalom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20050 S. Vermont Ave., Torrance, CA 90502
T. (310) 787-1004 shalomch.org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서보천 담임목사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51-3153 / doulos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권영국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구원하라!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박성규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여호와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 862-9191 F. (818) 862-9777 www.churchmannam.net

파사데나, 라크라센타, 라캐냐다, 글렌데일, 밸리, 벤추라, 버뱅크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20
주일 성경공부/새교우반 새벽예배 오전 7:00 (토) 오후 1:00

권오균 담임목사

글렌데일한인장로교회
예수님을 붙잡고, 자라는, 건강한 교회!

4002 Verdugo Rd., Los Angeles, CA 90065
T. (323) 254-4012 / gkp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방수민 담임목사

베다니한인교회
문턱없는 교회 변화받는 교회 찬미하는 교회

2401 N. Brighton St., Burbank, CA 91504
T. (818) 845-5431 F. (818) 845-1683 / bkchurch.org

주일예배 1부 오전 11:00
주일예배 2부 오후 1:30
EM/YOUTH 예배 오후 1:30

박정환 담임목사

예수인교회
Christian Missional Church

10452 Louise Ave. Granada Hills, CA 91344
T. (434) 229-6597 / cmc-12.com / yesu12@g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김인식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제자가 되어 3300 세계비전을 이루는 생명공동체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여호와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 862-9191 F. (818) 862-9777 www.churchmannam.net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윤대혁 담임목사

사랑의빛선교교회
말씀위에 굳게 서리라

2801 E Colorado Bl., Pasadena, CA 91107
T. (626) 744-9191

주일예배 오전 11:20
영아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최혁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T. (818) 363-5887 / www.In-ChristCC.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제14차 워싱턴 주 주빌리 통일 구국기도회가 열렸다.

워싱턴 주 주빌리 통일 구국기도회

3.1절 정신 되새기며 “한민족 통일 위해 기도”

한민족의 평화 통일을 준비하고, 교단과 교파를 넘어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워싱턴 주 주빌리 통일 구국기도회(지도위원 오대원 목사, 대표 권준 목사, 총무 박상원 목사)는 지난 5일, 시애틀 베다니교회(담임 최창효 목사)에서 제 98차 3.1절 기념 구국 기도회를 열고 조국 대한민국의 통일과 화합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

시애틀, 웨드넬웨이, 타코마 등 워싱턴주 각 지역에서 기도회에 참석한 성도들은 믿음의 선조들이 가졌던 3.1 운동의 나라 사랑의 마음을 기억하며, 분단 이후 우리의 교만과 분열, 타락의 죄를 회개했다. 이어 정치적 분쟁으로 고통 받는 고국 대한민국에 평화와 화해가 임하도록 기도했다. 또 굶주림과 공포, 극한 고난을 겪는 북한 동족들과 탈북자들, 국경에서 선교하다 억류중인 선교사들이 속히 석방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했다.

이날 기도회에서 설교한 성령의 샘 대표 피터 양 목사는 “New Korea로 부르심”이란 제목으로 설교하면서 “통일은 정치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연합과 순종으로 통해서 일어날 것”이라며 “우리에게 이뤄질 통일의 뉴 코리아를 준비하며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사람, 그리스도를 닮은 겸손의 사람의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목사는 “통일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남한에만 3만 명의 탈북민이 있을 정도로 통일은 이미 우리 안에 와 있다”며 “대한민국이 하나되고, 남북이 복음 안에서 하나되고, 통일 한국이 열방을 축복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전 세계 흩어진 디아스포라를 비롯해 남북한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통일된 나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준 목사는 “하나님이 하시기에 통일은 반드시 이뤄진다. 정치적, 경제적 논리가 아닌,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통일을 이루실 것”이라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합성이 한반도를 덮도록 우리 모두가 통일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쓰임 받는 기도자들이 되자”고 전했다.

한편, 15차 워싱턴 주 통일기도회는 6.25 전후로 타코마 지역 교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 브라이언 기자



디딤돌선교회 노숙자 재활 및 영성 수련회

노숙자에서 선교사로 변화되다

디딤돌선교회(대표 송요셉 목사) 제 16차 노숙자 재활 및 영성수련회가 지난 2월 27일(월)부터 3월 2일(목)까지 다니엘기도원에서 진행됐다.

이번 수련회에는 23명의 노숙자들이 참여했으며 새벽기도와 성경공부, 부흥회, 그룹 모임, 성찬식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부흥회 강사로는 하나님과동행하는 교회 유예녹 목사가 나섰으며, 새벽기도는 토니 리 목사, 강의를 스타 홀더, 게리 덴키, 아담 엘스워스 목사가 인도했다.

수련회에 참석자들은 “우리들은 늘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을 받으며 살아왔다. 심령은 메말랐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상태로 소망 없이 살고 있었다. 수련회에서 은혜를 받으며 다시금 신앙이 회복되는 좋은 시간이 됐다”고 간증했다.

특별히 2일에는 재의 수요일 예배로 이마에 재로 십자가를 그리며 십자가를 묵상하는 시간이 진행됐으며 마지막 날에는 송요셉 목사의 인도로 종강예배와 성찬예배가 진행됐다.

종강예배는 특별히 노숙자 출신의 에뉴마 형제를 고향인 나이지리아 선교사로 파송하는 파송식이 거행돼 의미를 더했다. 에뉴마 형제는 나이지리아에서 영어 교사를 하다가 20년 전 이민 온 후 노숙자가 됐다. 그는 디딤돌선교회에서 인도하는 재활 훈련에 참여한 후 삶의 변화를 받고 3년 동안 훈련에 참여해 왔다.

디딤돌선교회에서는 매년 4차례의 재활 및 영성수련회를 갖고 있으며 5월말에 제 17차 훈련을 계획하고 있다. 김 앤더슨 기자

케네스 배, 서빙라이프 공동대표 취임

북한 인권과 탈북자 위해 더욱 앞장

735일 간 북한에 억류됐던 풀려났던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 선교사가 2일 북한인권 국제NGO 서빙라이프 공동대표에 취임했다.

케네스 배 공동대표는 “북한 동포들을 위한 NGO를 준비하던 중,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들을 서빙라이프에서 이미 상당 부분 실현하고 있어 너무나 놀랍고 반가웠다”고 전했다.

서승원 공동대표 겸 이사장은 “열정과 헌신으로 준비된 케네스 배 선교사님을 통해 서빙라이프는 새로운 도약을 꿈꾸게 됐다”며 “이를 통해 서빙라이프는 더 많은 북한 동포들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한국내 3만명의 탈북민들이 통일시대 리더로 정착할 수 있도록 더욱 앞장설 것”이라고 전했다.

케네스 배 공동대표는 지난 2012년 11월 3일 북한에 들어갔다 ‘반공화국 적대행위’ 혐의로 2년 넘게 억류됐다. 2014년 11월 8일 석방돼 미국으로 귀환했다.

서빙라이프는 북한에서 인간의 가치와 권리를 억압받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그들의 실질적인 필요를 공급하며 이를 위해 세계 이웃들과 연합하는 국제 NGO이다. 11년 전인 지난 2006년, 한국계 미국인 서승원(Simon Sungwon Suh) 선교사에 의해 설립됐으며, 창립 이후 북한동포들의 인권 신장과 탈북민의 국내 정착을 돕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중이다.

타겟 남녀공용 화장실 이후 수익 감소

미국의 대형마트인 '타겟'이 남녀공용 화장실 정책에 따른 불매 운동으로 수익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타겟은 작년 트랜스젠더들을 위한 남녀공용화장실 정책을 추진해 세컨드보우트(2ndVote), 미국가족협회(American Family Association, AFA) 등 보수단체로부터 격렬한 항의를 받았다.

보수단체들의 비난은 곧 불매운동으로 이어졌고, 이는 곧 타겟의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타겟의 온라인 사업 분야는 성장하고 있는 반면, 매장 판매율은 3분기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타겟의 브라이언 코넬 회장이 "예상치 못한 판매세 완화가 있었다"고 밝혔다. 타겟은 올해 1분기 수익이 증권가의 예상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주가는 12.1% 떨어진 58.79달러를 기록 중이다. 이는 2008년 이후 하루 동안 기록한 가장 큰 폭의 하락이다. 강해진 기자

IS 성노예 200여 명 구출한 美 목회자

미국 목회자가 IS 성노예로 붙잡혀 있던 200여 명의 여성들을 해방시킨 사연이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다. 7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는 뉴욕의 한 목회자의 사연을 공개했다.

지난 몇 년 동안 고향을 떠난 난민들을 돕기 위해 이라크를 수 차례 방문해 온 이 목회자는 수니파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에 성노예로 붙잡힌 이들을 구출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있다.

작년 4월에는 이라크 북부의 지하 밀수조직원들을 통해 아디지족 여성과 그녀의 어머니를 구출할 수 있었다. 그는 대가로 1,500달러를 지불했다. 미국으로 돌아온 그는 8월과 12월 다시 이라크로 들어가 비용을 지불하고 두 가정과 3명의 여성을 구출했다.

이렇게 그가 IS로부터 해방시킨 여성과 아이들은 200여 명이 넘는다.

이 목회자는 끔찍한 상황에 직면한 동료 기독교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이 같은 행동을 하게 된 동기라고 밝혔다.

그는 "내게도 3명의 딸이 있다. 만약 내 딸들이 테러리스트들에게 끌려갔다면 어땠을까"를 생각했고 이것이 동기가 되었다. 많은 이들이 이 일에 동참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사랑하는 이들과 헤어져서 고통받는 이라크 가정들을 돕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후원하는 미국인들이 있다"면서 "이 돈은 IS에 직접 지불되지 않고, 이들을 구조하는 이들을 위해 사용된다"고 덧붙였다.

지난 1월 영국 인디펜던트는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운영 중인 비밀 지하조직을 통해 IS에 인질로 붙잡혔던 아디지족 여성 3,000명 이상을 구출했다고 보도했다.

인디펜던트는 "이 조직은 전 세계 모든 인종들로 구성돼 있으며 최소한 5개 단체 이상의 독립적인 단체들이 협력하고 있다. 조직원 중 일부는 라카에서, 다른 일부는 모술에서 모집됐으며, 모든 단체들이 다른 장소에서 일하고 있다"고 전했다. 강해진 기자

학교 내 성전환 화장실 지침 폐기될까?

지난 2월 22일 트럼프 행정부는 법무부와 교육부 명의로 전국 학교에 보낸 서한에서 "성전환 학생의 화장실 이용에 대한 정부의 기존 지침을 폐기한다"고 선언했다.

지난해 5월 오바마 전 행정부는 공립학교에서 성전환 학생들이 자신의 정체성에 맞게 남성·여성 화장실 중 하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마련한 지침을 폐기한 것.

이에 애플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등 유명 업체들이 이러한 '트랜스젠더 화장실' 권리보호 지침을 폐기하기로 한 트럼프 행정부 지침에 반발하고 나섰다.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위 업체들을 비롯한 120여 실리콘밸리 기업들은 해당 행정명령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2일 법원에 제출했다. 이들은 지난 1월 트럼프 행정부의 7개국 반이민 행정명령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번 트랜스젠더 화장실 사용 관련 행정지침 반발은 '휴먼라이츠캠페인'이라는 현지 인권단체에서 주도하고 있으며, 위 기업들 외에도 페이스북, 델, 핀터레스트, IBM, 텀블러 등이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언론은 "미국 IT업체가 동성애자들의 권리 보호에 앞장서는 이유는 이들이 해당 기업들에 많이 근무하고 있을 뿐 아니라, 기술기업 자체가 어떠한 규제도 거부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애플 측은 2월 23일 "모든 사람은 차별 없는 환경에서 변역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며 "성전환 학생들은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하고, 그들의 권리와 보호를 제한하거나 폐지하려는 어떤 시도에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구글도 "성전환 학생들의 권리를 후퇴시키려는 움직임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강해진 기자



귀국하는 비행기에서 피터 야섹 선교사(좌)와 체코 외무부 장관 루보미르 자오랄렉(우) ©루보미르 자오랄렉 트위터

수단서 종신형 선고받은 선교사 14개월 만에 전격 석방

핍박받는 아프리카 그리스도인들을 섬기다 간첩 혐의로 수단 정권에 체포, 종신형을 받았던 피터 야섹(Petr Jasek) 선교사가 수단 대통령의 사면으로 지난 달 26일 마침내 석방됐다. 지난 1월 29일 종신형을 선고받은 지 약 한 달만이며, 수감된 지는 약 14개월 만이다.

체코 시민권자이며 오랜 기간 미국 순교자의 소리(VOM, The Voice of the Martyrs) 스태프로 일한 피터 야섹은 재작년 12월 수단 기독교인들을 방문하고, 시위 중 큰 부상을 입은 한 학생에게 치료비를 전달했다가 하르툼 공항에서 체

포됐다. 죄목은 간첩행위와 불법 입국 등이었다. 종신형 판결 후 체코 외무부 장관 루보미르 자오랄렉은 수단 정부와의 협상을 위해 수단 수도 하르툼을 방문했다. 그리고 지난 26일 주일 오후 자오랄렉은 집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피터 야섹과 함께 찍은 사진을 트위터에 공개했다.

피터와 함께 체포돼 재판을 받은 3명의 수단 현지인 중 하산 압둘라힘 목사와 압둘모민 압둘마우라는 피터의 간첩 혐의를 도왔다는 이유로 각각 12년 형을 선고 받고 여전히 투옥 중이다.

O.C./앨버틴 지역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바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PM.org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562) 483-0191 / (714) 493-0191

김철민 장로

주일예배 1부 주일 9:00AM
주일예배 2부 주일 11:00AM
주일학교 주일 11:00AM
대학원대학 E-college 주일 2:00PM
제지훈련/사역훈련 화-목 7:30PM

새벽예배 월-금 5:30AM
토 6:30AM
NEXT K&S club 주일 12:40AM-1:40PM

김일영 담임목사

NEXT 사랑의교회
NEXT Sa-Rang Church
11 Musick Irvine, CA 92618 Tel (949)829-0010(office)
www.nextsarang.com

주일예배 (1부) 10:00am 수요일기도회 9:00pm
(2부) 1:30pm 금요일전야예배 8:00pm
새벽예배 (월-토) 5:00am - (다름날) 7:00am
화요일종교기도회 7:00pm 토요일전야예배 7:00pm

앤드류 김 담임목사

UBM교회
3세대가 함께 성령안에서 자유롭게 예배하는교회
1531 S.Sinclair St., Anaheim, CA 92806
Tel: 714-634-8360, Cell:714-600-7700 www.ubmchurch.com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일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장미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어장년부 오전 9:30, 11:30
한아대학생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 6:00(토)

김영길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사랑받고 사랑하는 교회,전도와 선교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나침반 한국학교 주일 오전 9:15
영 유아부 오전 11:00 EM대학부 오후 1:30
영 청소년부 오전 11: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토 6:30

민경엽 담임목사

나침반 교회
모이는 교회 흠뻑이는 교회
1200W Lambert Rd., Brea, CA 92821(Lambert&Puenite)
T.(562)691-0691 F.(562)691-0698 / nachimbans.org

주일 1부예배 8:00 AM 주일학교 11:00 AM
주일 2부예배 11:00 AM 새벽예배 화-금요일 5:30 AM
주일 3부예배(영어) 1:30 PM 토요일 6:30 AM
금요일찬양예배 7:30 PM

이원준 담임목사

남가주가스펠교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
8132 Garden Grove Bl., Garden Grove, CA 92844
T. (714) 799-5673 email: 8132gospelchurch@g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영.초등부 예배 오전 11:00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6:00 성가족 예배 : 매월 4째주 주일 오후 5:30분
대학청년예배 오전 11:00

오병익 담임목사

남가주 벤엘 교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소문난 교회
5600 Crescent Ave., Buena Park, CA 90620
T.(714) 806-2562 kpcadavid@yahoo.com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성경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한글학교 오후 6:00 (금)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예배 새벽 5:30 (월-금)

박재만 담임목사

남가주순복음교회
죽어가는 세상을 성령의 능력으로 살리는 교회
3111 W. Orange Ave., Anaheim, CA 92804
T. (714) 952-0191 / www.socalfgc.com

1부 주일예배 오전 8:00 토요일새벽 오전 6:00 분당
2부 주일 영어예배 오전 10:00 금요일부 저녁 8:00 분당
3부 주일예배 오후 1:30

허귀암 담임목사

놀익연합감리교회
Norwalk United Methodist Church Korean Ministry
13000 San Antonio Dr., Norwalk, CA 90650
T.(562)802-4959 C.(714)308-7308 / usa8291@gmail.com

주일예배(KM) 주일 11:00am 금요일찬양예배 8:00pm
영어예배(EM) 주일 9:00am (매월 두번째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아유치부, 유등부, 중고등부) 토 6:00am

안창훈 담임목사

늘푸른선교교회
Mission Community Church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주일예배 오전 11:30 EIM주일 오전 11:30
금요일예배 오후 8시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김일권 담임목사

다감사교회
The Gamsa Community Church
2000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714)988-3321, www.dagamsachurch.org

주일예배 1부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새벽예배 월-금 새벽 5:30
3부 오후 12:20 토 새벽 6:20
4부 오후 2:00(젊은이예배)

고현종 담임목사

디사이플교회
17502 Daimler St., Irvine, CA 92614
T.(949)502-4923 / www.disciplecc.org

1부예배 오전 8:45 금요일 Alpha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오전 6:00 (토)
EIM예배 오전 9:30

이서 담임목사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821-9900,9901 / visioncc.org

1부예배 오전 7:15 성인 영어 예배 오전 9:15,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15 일본어 예배 오후 1:30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15,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김한오 담임목사

베텔한인교회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 오전 9:15 중등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고등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한아부 오전 11:30
KMC대청년부 오후 2:00

권혁빈 담임목사

앨버틴온누리교회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949)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9:00 P-inder(Korean)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Children(1-6) 오전 11:00
금요일 기도회 오후 8:00 Youth(7-12) 오전 11:00
토요일한글학교, 아프리카스쿨 College 오후 1:00

이동준 담임목사

앨버틴 아름다운 교회
17702 Cowan, Irvine, CA 92614
T. (949)250-1111 / www.beautiflulch.com

1부예배 오전 7:30 EIM 예배 오후 1:30(청년 영어)
2부예배 오전 9:30 새벽 예배 오전 5:30(월-금)
3부예배 오전 11:30 고등부 오전 11:30
4부예배 오후 1:30(청년 한글예) 청년부 수요성경기도회 오후 7:30
FAME예배 오전 11:30(청년 영어)

박경호 담임목사

앨버틴 침례 교회
하나님의 인재를 양성하는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857-9425 / www.irvinechurch.com

주일 인터넷 생방송기 오전 6:30
주일 예배 오전 11:30
주일 예배 오후 7:30
토요일 예배: 오후 8:30 초등부 목요일예배: 오후 7:30

우대권 담임목사

영광빛복음교회
주의 권능, 치료의 광선을 행하고 알리는 교회
14515 Blaine Ave., Bellflower, CA 90706
T.(213)291-5901 / (714)833-2568 daekwon.org

주일예배 오전 9:00 & 10:30
새벽예배 화-토 5:30, 토 6: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김민재 담임목사

예진교회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친구' 공동체
4221 Rose Dr., Yorba Linda, CA 92886(Worship Center)
T. (714)788-3677 / www.yejinchurch.com
18639 Yorba Linda Bl., Yorba Linda, CA 92886 (교회 사무실)

주일 1부예배 오전 8:15 유년부 초등부예배 오전 11: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영어중고등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한아중고등부예배 오전 10:30
영어주일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토 주일 오전 6:00

엄영민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열린교회, 주는교회, 키우는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891-2029, 898-1068 F. 714-373-3097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양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45 청년부예배 오후 2:00
3부찬양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삼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roc.com

1부예배 오전 07:3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2부예배 오전 09:3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30 금요일성경회 오후 08:00
4부예배 오후 2: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삼금받는교회 세계선교를 머무리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1부예배 오전 8:30 수요일기도회: 오후 8:00
주일 1부 예배 오전 9: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EIM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히스패닉 예배 오후 6:00

주희록 담임목사

주님의빛교회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252-9191 / www.lordlight.org

플러튼 채플 Fullerton Chapel
주일 1부 예배 오전 9: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목요일성경집회: 7:45pm
새벽예배 월-금 5:30, 토 6:00

최혁 담임목사

주안예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117 N. Pomona Ave., Fullerton, CA 92832
T. (657)217-5558

주일 성금미 예배: 오전 9:00am 금요일기도회: 금요일 오후 8:00pm
주일 한국어 예배: 오전 11:00am 새벽기도회: 월-금요일 오전 5:30am
주일 영어 예배: 오전 11:00am 토요일 오전 6:00am
주일 유등부 예배: 오전 11:00am

임경남 담임목사

토기장이교회
1808 W.Lincoln Ave., Anaheim, CA 92801
T.(714)234-5338 / www.pottersccc.com
E-mail: info@Pottersccc.com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조원재 담임목사

하나님의 은혜교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교회가 되자"
14706 Pioneer Blvd., Norwalk, CA 90650
T. (213) 247-7440 / godsggracechurch.org

특별 이벤트

PRO-Z USA에서는 그동안 여러분들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특별 이벤트를 실시하오니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소중한 분들에게 선물하세요

한병 더

절호의 찬스

지금 구매하시면!

3병 + (1병 Free)

\$267 + Tax



+



* 가까운 약국이나 건강식품점에서 구입하세요!

프로지 골드

PRO-Z GOLD

당뇨! 당뇨는 원인치료가 해답입니다!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PRO-Z GOLD



방송인 송해 선생님의
건강지킴이, 프로지골드

당뇨병의 원인

아연은 우리 몸의 대사작용을 하는 필수 미네랄로 인슐린의 저장 및 분비에 필수적인 성분입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분비 기능이 저하되어 당뇨병을 유발하게 됩니다. 인슐린의 저항성을 낮추어 분비된 인슐린이 제 기능을 하도록 도와줍니다.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과 식후 혈당 상승 억제 기능이 강화되었습니다.



문의
전화

213.434.1170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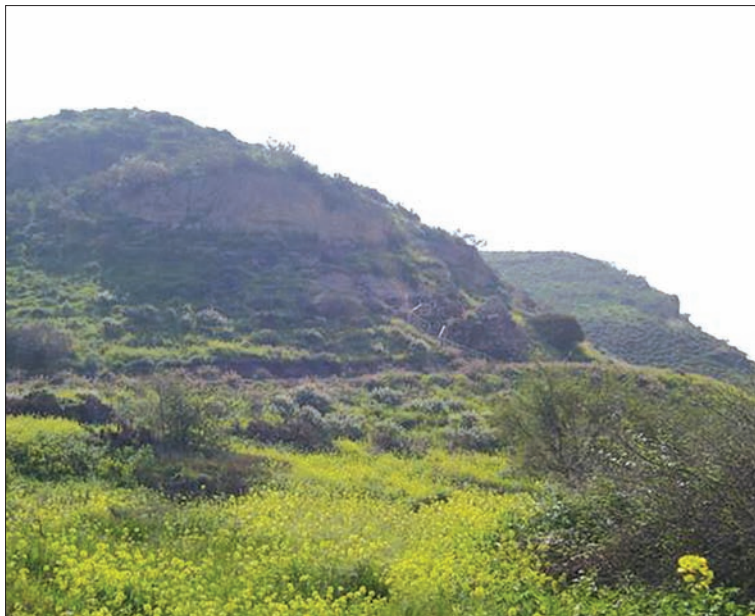
www.prozusa.com / prozusa1@gmail.com

PRO-Z USA Inc.

미국 공식 판매처



거라사 국립공원 입구



거라사에서 볼 수 있는 비탈진 언덕. 곳곳에 무덤의 흔적이 남아있다.

■ 영성으로 가는 성지순례 이야기(25)

사단의 결박을 끊으신 주님을 만나는 거라사

갈릴리 바다의 중심도시 티베리아스에서 쿠러쉬(Kursi) 국립공원으로 가는 길은 두 가지다.

티베리아스에서 서북쪽 해안 90번 도로와 북쪽 해안 87번 도로를 타고 갈릴리 바다 일주 도로를 서쪽에서 북쪽 해안으로 돌아 동쪽 해안으로 오게 되면 92번 도로가 있다. 92번 도로는 갈릴리 바다 일주 도로이다. 이곳에서 789번 도로를 만나는데 이 도로가 골란고원으로 올라가는 도로이다. 그 도로 위에 휴양게스트 하우스가 있는 라못이란 마을이 있고 그 아래에 우리가 가고자 하는 쿠러쉬 국립공원이 있다.

또 하나의 길은 90번 도로를 타고 갈릴리 바다 남쪽 일주 도로로 내려가면 남에서 동북으로 92번 도로를 만나 이곳까지 가는데 승용차로 약 35분 걸린다.

이곳이 갈릴리 바다의 중간쯤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티베리아스에서 바다를 건너면 직선으로 만나는 곳에 위치한 것이다.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였던 가버나움에서 이곳까지는 87번 도로를 경유하여 92번 일주 도로를 타고 약 20분이면 도착할 수 있다.

성경에 나타난 거라사

마태복음 8장 28-34절에는 가다라(Gadara) 지방으로, 마가복음 5장 1-20절에는 거라사(Gerasa)인의 지방으로 표기되고, 누가복음 8장 26-39절에도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이라고 기록된 이곳은 오늘날 쿠러쉬(Kursi)라 부르는 곳이다.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이 풍랑은 우기인 겨울에 일어나는데 주로 골란고원의 더운 바람과 지중해의 찬바람이 만나 발생한다.) 제자들이 무서워하고 있을 때 주님

께서 풍랑이 이는 바다를 잔잔케 하신다. 갈릴리 서편에서 출발하신 주님은 동편 가다라 지방에 도착하신 것이다. 이곳에서 귀신 들린 자가 무덤 사이에서 나와 주님을 만났고 주님께서 귀신들의 간구를 듣고 근처에 있던 돼지 떼에 들여보내니 귀신들이 들어간 돼지 떼들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게 되었다. 마가복음 5장 13절에서는 그 수가 자그마치 2천 마리나 되었다고 한다. 주님은 유난히 갈릴리 주변에서 귀신들을 많이 쫓아내셨다. 주님의 오신 목적이 바로 사단의 결박을 끊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신 것임을 새삼스럽게 느낄 수 있다.

당시 종교문화적 습관으로는 구약 레위기에 근거하여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었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는 돼지가 사육되고 있다. 갈릴리가 이방인 지역이었고 당시 로마군에게 식용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높다.

또 갈릴리는 ‘비아 마리스’라는 해변길이 이곳을 지나면서 많은 외국인들과 외국 상품, 외국 신들이 넘쳐났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 자기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지만 해변 길을 따라 다녔던 이방인들에게 판매하기 위해 돼지를 사육하였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이곳에 살았던 유대인들은 아무래도 개방적일 수밖에 없었고 생계를 위해 돼지 사육도 마다하지 않았을 것이다.

오늘날의 거라사

시리아 영토였던 이곳을 1967년 6월 전쟁 이후 점령한 이스라엘은 1970년에 도로 공사를 하던 인부들에 의해 고대 수도원의 벽돌을 발

견하게 된다. 이 발굴로 비잔틴 시대(AD 385-AD 638)에 만들어진 수도원이 드러났다. 이 수도원은 예배 시설뿐만 아니라 올리브 기름을 짜는 장소도 가지고 있다. 이 건물에 이어진 시기는 AD 5세기로 추정된다.

614년 페르시아의 침공으로 수도원은 무너졌고 이후에는 아랍인에 의해 잠시 사용되다 다시 무너졌다. 여러 차례 파괴에 복구 작업이 이루어졌는데 고고학자들은 발굴 유적을 통해 이곳 경당이 있는 바위 근처에서 돼지 떼들의 기적이 일어났을 것이라 생각했다.

1970년 발굴 이후 수도원의 바닥 부분만이 보존되어 오던 것을 열기둥까지 세워 오늘날의 모습을 갖추게 된다. 1982년 9월부터 기독교인들의 순례가 잦아지자 이스라엘 정부에서는 국립공원으로 만들었다.

쿠러쉬와 제라쉬

1999년 가을에 필자는 중동선교사 대회 참석차 요르단에 갈 기회가 있었다. 대회를 마친 후 제라쉬(Jerash)라는 유적지를 방문했다. 그때 안내하던 모 선교사가 제라쉬를 거라사라고 소개하면서 돼지 떼 2천 마리가 근처 강(야르묵)으로 가서 몰사되었다고 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고 한동안 황당하였다.

제라쉬는 가다라 지방의 중심 도시다. 물론 제라쉬가 거라사라고 기록된 것이 많고 현지에서도 그렇게 소개하고 있다. 예수님 시대에도 이곳은 ‘거라사’라 불리우기도 하였다.(예수님 당시에는 2만 명이나 거주하였다.) 그러나 제라쉬를 거라사로 보기에는 상황상 맞지 않은 점이 다소 있다.

헬라어로 거라사라 불리워지는 제라쉬는 길르앗 지방의 헬라도시였다가 로마의 점령 후에는 데카폴리스 10개 도시 중에 하나일 정도로 큰 도시로 성장하였다. 중요한 도로가 지나가고 주변의 철광산으로 인해 부유한 도시 중의 하나였고 로마황제가 관심을 가진 도시이기도 하였다.

기원전에는 이스라엘의 하스모니안 왕조의 통치를 받기도 하였다. 서기 7세기까지 도시는 번영하였고, 대규모 교회들이 건축되어지기도 하였다. 아랍시대 이후로 이 도시의 이름이 제라쉬로 바뀌었지만 현지에서는 여전히 이곳을 ‘거라사인의 땅’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그 선교사는 제라쉬를 귀신 들린 사람에게 돼지 떼에게 귀신을 들어가라 해서 바다로 들어가게 했던 그 기적의 현장이라고 설명하였던 것 같다. 그러했다 할지라도 제라쉬는 성경의 사건 내용과 맞지 않는다. 다만 그 지방을 대표하는 도시라 볼 수 있겠다.

왜 쿠러쉬가 되어야 하나

어째서 제라쉬가 아니고 쿠러쉬인가? 그것은 바로 갈릴리 바다 때문이다. 성경은 분명히 돼지 떼가 갈릴리 바다로 들어갔다고 한다.

또 예수님이 가신 거라사인의 땅은 가다라 지방이다.(마8:28) 마가복음에도 예수님이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렀다고 기록하였다. 배에서 내려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만났다고 했다.(막5:1-2) 그러면 이곳은 갈릴리 바다 동쪽 선착장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산이 있고, 산 중턱에는 돌 무덤들이 있으며 평지가 산비탈에 있어야 한다. 그곳에서 갈릴리 바다에까지 연

결되는 낭떠러지 같은 경사가 있는 비탈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가까운 곳에 마을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갈릴리 바다에서 50km나 떨어져 있는 제라쉬가 거라사라고 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예수님이 배에서 내려 100리나 걸어가셨고, 돼지 떼가 100리나 와서 몰살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그 근처에 있는 강도 아주 작은 강이어서 바다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갈릴리 바다 동쪽에 있는 쿠러쉬는 우리말 표기로는 ‘거라사’이다. 이곳에는 갈릴리 바다가 가까이 있고, 산과 비탈에서 갈릴리 바다로 내려가는 모양이 비슷하고 산 중턱에는 고대 돌 무덤들과 집터들이 있다. 지금은 비탈 밑으로 포장된 갈릴리 바다 일주 도로가 있지만 옛날에는 비탈이 갈릴리 바다까지 연결되어 절벽을 이루었고, 절벽의 끝은 해변이 아니라 수심 25m 이상 되는 곳까지 뻗어 있었다고 한다. 그곳에는 이방인들이 거주하였고 돼지 키우는 사람이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제라쉬가 거라사의 본동네라 할지라도, 쿠러쉬가 예수님이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만난 곳을 여러 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성지를 둘러 볼 때는 가능한하면 성경적이며 정확한 근거를 갖고 있어야 한다. 여러 사람의 추측을 따라가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계속〉**



서병길 교수
이스라엘선교회
캘리포니아신학교

2017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IRUS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 (총회장 김선규 목사)
- WKPC(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인준 신학교
- I-20 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 ESL, 학사, 석사, 박사과정

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1-0081, FAX: (213)381-0010
www.irus.edu, office@irus.edu

미성대 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 기독교회(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지체 발행
- 안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박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김시은 목사 71(213)407-4569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 학교
총장 : 류종길 박사, 이사장 : 김광열 목사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 Fax: (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ceunmaster@gmail.com

충신 대학교 신학 대학원
CHONGSHIN UNIVERSITY THEOLOGICAL SEMINARY

캘리포니아주교육국(BPPE)인준 정식 학위 수여
수시입학(통신가능),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모집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에서 강도사 거쳐 목사 안수
모든 민족국제복음주의 총회에서 목사 안수
총장: 이동규 박사 학장: PASTOR YOUNG CHOI

978 S. Hoover St #201, LA, CA 90006
T. (213)386-0300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목사고시, 안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미주충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선교 사명을 이끌어 갈
사명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2975 Wilshire Blvd. #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010 e-mail: info@chongshinusa.edu
www.chongshinusa.edu

복음 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준
- 특 전 :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솔로몬 대학교

땅끝까지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자 (마태복음28:18-20)

총장: 백지영 박사 부총장: 브랜트 프라이스 박사
3921 Wilshire Blvd, #4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1-7755 Fax, 213-381-5055
http://solomonuniv.org/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ABHE, TRACS, ATS 정회원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온캠퍼스 & 온라인 프로그램
신학, 목회학, 기독교상담학 학사/석사/박사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 388-1000 Fax: 213) 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캘리포니아 두란노 대학 신학대학원

목회학, 신학, 철학박사 California Tyrannus University
BPPE Ed, 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감 김호 박사

1008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6
Tel, 213-507-1933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 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온라인 쇼핑 비즈니스

주부, 여자 유학생 환영
주 8~10시간 사용하여 엑스트라 수입을 창출
연락처 T(818)590-6078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중고차 황제 김기형

Family 자동차 새차 맞춤 리스 중고차 매매

\$ 중고차 최고가 매입 \$ “기본 \$700 더 드립니다.”

213.453.5900 714.743.1000

933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familyauto.us



한국의 사랑

한의원 Zo'e 조애

Tel: (213) 718-8275

심혈관 질환, 간질환, 중풍, 소화기문제, 내분비문제, 부인병, 고혈압, 당뇨, 부종, 알러지, 신장병, 각종통증, 갱년기, 생리불순, 생리불순 (아들 원하시는 분)

2120 W. 8th St, #208, LA, CA 90057 (8th & Lake St.) (일수토 예약 필수)

2017 CD PRINTING

문의 323.265.0244 junimmedia@gmail.com www.junimmedia.com

교회성경, 부흥회 사대앨범, 신학교 강의 오디오북, 소망, 대망 모두 제작이 가능합니다.

신년맞이 패키지 (8인치CD + CD봉투 + 라벨포함입니다.)
1,000장 \$350
3,000장 \$950 (디자인 Free)

A형 스탠드 배너 \$160 (디자인 포함)
사망의 동산 교회 \$140
Stand X-Runner \$65

시티보험 자회사 CA Lic. #0156071

메디케어 올해 65세 되십니까?

메디케어 신규보험 가입 & 변경기간 10월 15일 ~ 12월 7일

■ 메디케어 어드벤처지 (Part C) ■ 메디케어/메디칼 (변경기간 상관없음)
■ 메디케어 Part D (처방약) ■ 메디케어 등 무료 상담해 드립니다.

문의 상담 213-321-0302 Connie Kim (김경미)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 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 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 프로 미용인도 OK)
- 회비: 월 \$10
- 강사경력: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213.392.2323

왕만두 (10개 \$10)
팔짚빵
부추교자 (50개 \$20)
김치교자

무료배달 (\$40이상 주문시)

손으로 정성껏 만듭니다.

인하손만두 626.731.7864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SAMSUNG SHIPPING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이사 가능

귀국· 시내· 타주 이사· 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 전화 (877) 580-2424 (310) 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 90248

리프팅 라인·지방분해

최신장비 도입
*리프팅 라인 4회 \$999
*부분지방 분해 5라인 8회 \$999

• 초스피드 다이어트
1달에 7파운드~25파운드 감량

- 각종 피부병과 아토피
- 습진 화농성 여드름

✓ 손가락 { 류마티스 관절통증
✓ 발가락 { 퇴행성 관절통증
✓ 마디관절 { 손목, 발목 질환

* 지속적인 코골이 증상

- 치질 (항문하혈, 통증)
- 독소제거, 혈관 청소
- 갑상선, 당뇨병, 정력제
- 불임증 (자궁축, 하혈)
- TMJ 턱관절 장애
- 우울증
- 관절염, 다리 쥐 오름
- 원형탈모, 지독한 비듬
- 만성두통, 요통

배 빠는 숙련약! 먹으면서 체중을 줄이고, 몸 전체에 부종이 빠지는 약

한달 \$50

* 쉽게 담배를 끊을 수 있는 약 취급합니다.

영선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 Herbs Clinic (213) 380-7800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 (6가와 아도모어) 영업시간: 월~금: 10시~5시 / 토 10시~2시

SAMSUNG SHIPPING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저희 "삼성통운"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한번 클릭으로 이사의 모든 것을 해결 www.samsungmoving.com

이사의 명가(名家) 가족 삼성 통운(주)

귀국이사

- 집안 내에서 손님 입회하에 한국식 포장 서비스
- 포장 재료 무료 제공
- 한국에서 완벽한 가구 set up 과 쓰레기 수거
- 귀국자동차 운송
- 새 물품 구입 시 Sales tax return 혜택
- 무료 창고 보관 2개월 서비스

시내이사

- 한국식 포장 이사 전문 (한국인)
- 피아노, 돌 침대 취급 전문
- 포장 box 대여 및 판매
- 사무실, 공장 이사
- 창고 보관 가능
- 무료 창고 보관 1개월 서비스
- 미국 내 전지역 정기 운행
- 샌프란 시스코, 베가스, 피닉스 당일 출발
- 싸애틀, 달라스, 아틀란타, 뉴저지 월 2~3회 정기 운행

자동차운송

- 미 전지역 모든 승용차 운송 (7~10일 소요)
- 한국 및 동남아 자동차 운송 전문
- 초 저가 차량 운송

해외이사

- 하와이, 괌, 알라스카
- 중국, 일본, 남미
- 캐나다 (밴쿠버, 토론토)
- 전 세계 선교사 이사 화물 전문

문의 1-877-580-2424 서울 (310) 538-3333 LA (323) 582-2424 OC (714) 777-7799

SAMSUNG SHIPPING, INC. samsungmoving@gmail.com

- 주정부 허가: MTR-190586
- US - DOT: 1847208 ICC - MC: 669029
- Fully Insured & Bonded

• 이동주 칼럼

대한민국, 샤리아국 또는 무슬림 국가 되지 않으려면

주파키스탄 한국대사관은 지난 2009년 3월 20일 ‘사기결혼’에 대해 공지하며 “최근 한국에 체류하는 파키스탄인들이 한국 여성들과 사기결혼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특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고 했다. 파키스탄인들은 산업연수생(일정기간 기술연수 후 취업) 자격으로 입국하고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다고 한다.

“파키스탄 이슬람 호적법은 아내를 4명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처·자식이 있는 파키스탄 노동자는 기혼임을 숨기고 한국인(여성)을 유혹, 결혼하려 합니다. 이들은 서류상 미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위조하여 제시하는 방법으로 사기결혼 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 이들은 취업 기간이 끝난 후에도 귀국하지 아니하고 불법체류하면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사기를 치거나 위장결혼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노동자와 결혼한 우리 국민들이 시집 방문 후 비참한 가정 사정을 목격하거나 남편에게 처·자식이 있음을 알고 후회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이 이혼하고자 해도 남편이 동의하지 않아 정신병자가 되거나, 매를 맞는다고 울면서 귀국시켜 달라고 대사관이나 동포들에게 하소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슬림들은 본국에 아내들이 있지만, 일부다처제이기에 현지에서 또 결혼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한국에 들어오는 유학생들은 유학생 비자를 받고 산업체로 가서 일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들은 저출산으로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학교에 정원을 채워주고, 인력난인 산업체에서 근로자로 일한다. 산업체 근로자 형식으로 들어오는 국비 유학생들이 안산, 김해, 창원, 시흥 등 한국 곳곳에 채워지고 있다.

노니 다르위시는 이슬람의 샤리아적 결혼관을 상세히 설명한다. 샤리아 결혼이란 가족들 사이의 법적·금전적 계약이다. 계약은 보통 신부의 집에서 이뤄진다. 신부는 격리된 방에서 기다리고, 정부 관리 앞에서 신랑이 계약서에 서명하면 이어서 신부가 서명한다. 그 계약서에 기록된 것에는 별 관심을 두지 않는다.

위와 같이 이슬람식 결혼의 의미는 매우 독특하다. 여성의 몸 전체를 성(sex)으로 대하는 무슬림 남성들은 결혼 비용으로 반드시 신부의 몸값을 지불해야 한다. 신부 몸값(우주루, ujur, 품삯)을 이집트에서는 메흐르(mahr)라고 한다. 메흐르는 여성과 즐기는 대가로 여성에게 전달하는 돈을 의미하는 전문용어이다.

샤리아식 일부다처제 결혼은 Sura 4:3에 근거한다: “만약 너희가 고아들을 (과부들을) 공정하게 대처하여 줄 수 있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다면 좋은 여성과 결혼하라. 두 번 또는 세 번 또는 네 번도 좋으리라.”

이슬람 샤리아식 결혼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1. 법원에 기록되는 결혼

신부들을 네 명까지 둘 수 있고 위와 같은 결혼식 절차를 밟는다. 필자는 UAE에서 11명의 아내를 국내 외에 둔 경찰관의 아버지 이야기를 들었다. 이와 같이 많은 부인을 둘 수 있는 또 다른 근거로는 13명의 정식 부인을 두었던 교조 무함마드의 분을 따르는 것이다.

2. 일시적인 결혼

이는 Sura 4:24에 근거를 둔 결혼이다. “... 간음이 아닌 합법적인 결혼을 원할 경우 지참금을 지불해야 되나니 너희가 그들과 결혼함으로써 욕망을 추구했다면 그녀들에게 지참금을 줄 것이라 그 의무가 행해진 후에는 쌍방의 합의에 의한 것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죄악이 아니거늘 실로 하나님은 만사형통 하심이라.” 이 일시적인 결혼은 비록 꾸란이 허락 할지라도 수니파에 의해 엄격하게 거절된다고 한다. 그러나 시아파에서는 이 권리를 사용하고, 한 남자와 한 여자는 일정한 시간 동안 결혼할 수 있다.

3. 노예와의 결혼

위 꾸란 구절 4:3에 “너희 오른손이 소유한 것”이란 개념이 나온다. 이는 보통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으로써 과부들이나 10대 소녀들이며, 물건과 별 다름이 없다. 이 여성들과는 결혼을 하든지 안하든지 이들의 포주가 되든지 간에 무한대로 자유롭다. Sura 24:33 “... 현세의 이익을 얻으려 하녀들에게 간음행위를 강요하지 말라. 그들은 순결을 지키고자 하니라. 만일 그들에게 강요하는 자가 있어 강요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녀에게 관용과 자비를 베푸시느니라”.

안타깝게도 지금도 우리는 수단의 핍박받는 비무슬림 노예여성들과, UAE에서 고통 받고 있는 필리핀 가정부들에 관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듣는다. 진 세손(Jean Sasson)이 지은 <솔타나>라는 번역서가 금년에 문학세계사를 통해 출판되었다.

책의 내용은 1983년 사우디 파이잘 국왕 전문병원에서 알게 된 사우디 공주가 겪은 실화이다. 이 책에는 해외 취업 목적으로 리야드에 하녀



이동주 소장
선교신학연구소

로 지원해 온 여성들이 비밀리에 당하는 신체적 폭력과 성폭력에 관해서 기록되어 있다. 한 필리핀 하녀는 본래 두 아들의 성 대상으로 고용되었는데 아버지가 먼저 강간했고, 어떤 인도 여성은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강간을 당했다.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모든 이교도들이 창녀라는 것이다.

4. 아내들의 교환

아내 교환의 근거 역시 꾸란에 의존하여 행한다. Sura 4:20: “만일 너희가 아내를 다른 아내로 다시 얻으려 할 때 너희가 그녀에게 준 금액 가운데서 조금도 가져올 수 없노라. 너희는 그것을 부정하게 취득하려 하느뇨 그것은 분명한 죄악이라”.

아내는 언제든지 다른 아내로 대체될 수 있다. 아내 교환 건에 관해 꾸란은 간통 개념이 없고, 다만 아내를 바꾸면서 탐내는 지참금 착취 죄만 거론하고 있다. Sura 66:5는 무함마드가 (불편스러운 아내들과) 이혼한다 해도 알라가 그들보다 훌륭한 아내들로 대체해 주신다는 뜻을 묘사하고 있다. “그가 너희와 이혼한다 해도 주님께서는 너희보다 더 나은 부인들로 너희 자리를 대체하여 주시니 그녀들은 보다 순종하고 믿음에 충실하며 헌신하고 회개하며 겸손하고 믿음을 위해 이주하며 단식하는 기혼의 여성이나 미혼 여성이라”.

샤리아의 결혼 계약서는 결코 영구적인 연약이 아니다. 남편이 일방적으로 이혼을 선포하면 이혼(talaq)이 된다. 남편이 두 증인 앞에서 “나는 당신과 이혼한다!”고 세 번만 말하면 이혼이 성립되며, 이혼권은 남자들에게만 있다. 꾸란은 한 무슬림 남성이 한 아내와 두 번 이혼할 수 있고 그녀와 두 번 재혼할 수 있다고 가르친다. 만일 그 남성이 그녀와 세 번째로 이혼했다면 그녀를 다시 데려올 수 없다. 만일 그가 그녀를 다시 데려오려면 그 이혼녀가 다른 남자와 일정기간 동안 결혼했다가 그와 이혼 한 후에야 다시 데려올 수 있다고 지시한다(Sura 2:229-230).

이와 같이 여성은 무슬림 남성에게

게 하나의 거래물이고 장난감 같은 물건이다. 그녀를 하나의 영혼과 희망과 기대를 가진 존재로 여기지 않는다. 그러므로 무슬림 아내들에게는 항상 두려움과 불신이 따른다. 그러나 모든 무슬림 남성들이 그렇게 살지는 않는다. 꾸란과 샤리아보다 더 의롭게 사는 무슬림들도 많다.

위와 같이 꾸란은 ‘일시적 결혼’과 ‘아내 바꿈’이라는 상식적으로 무서운 간통죄들을 합법적인 결혼으로 만들어서 영원히 간음죄를 제거하였다. 그리고 일부다처제의 의미는 아내가 언제든지 다른 아내로 대체될 수 있다는 것이며(Sura 66:5) 계속적인 간음죄를 종교법으로 인가하는 것이다.

이슬람 대처 방안과 결론

최근 한국에 외래 종교인 이슬람이 들어와 그들의 모스크를 짓고, 차세대 무슬림들을 위한 학교들을 짓고, 곳곳에 기도처를 요구하고, 할랄 음식을 요구하고 있다. 또 이슬람 자금 대여, 무슬림들의 사법부 시리즈 강연, 문화선교, 마스크 선교, 배꼽춤 강습 원조, 이슬람 국가들과의 친선과 친교, 무함마드 생일 축하 피켓시위, IS 살해 대상자 명단 통보, 장기체류용 결혼, 일부다처제 결혼, 그 피해사례들, 수 배로 늘어난 이슬람 지역 노무자들의 강간죄 통계 숫자 등, 최근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한국을 이슬람화하고, 한국에 샤리아를 입법화하려는 자료들이 될 것이다.

우리는 무슬림의 국회, 사법계, 정치계, 교육계, 경제계 등의 고지점령 진출 목적을 간파하고, 그들과 그들의 법이 우리의 통치자로 군림하지 못하도록 대비해야 할 것이다. 무슬림들이 한국을 이슬람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타기야 평화종교 선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이에 대처해야 한다.

한국에 샤리아가 입법화되는 날부터, 한국 여성들과 기독교인들에게 대재앙이 임한다는 사실도 깨우쳐야 한다. 우리는 구미 대륙에서 이미 경험한 관용의 결과를 거울삼아, 다문화주의를 이용하는 무슬림들의 배후 전략을 깨닫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방향감각 없는 알팍한 다문화주의적 동정과 인권주의를 한국의 이슬람화를 위해 사정 없이 이용하고 있는 무슬림들의 행태가 구미 대륙의 형편과 병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도 그와 같이 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할 것이다.

기독교인들이 종교다원주의와 문화다원주의에 심취하고 안일할 때, 이슬람은 그들의 역사 시종을 불신자와의 전쟁과 세계 이슬람화를 위

한 교육으로 ‘성전’ 준비를 해 왔다. 사실을 우리는 지금이라도 깨달아야 한다. 우리는 과거 기독교의 팻터키와 북아프리카와 중동의 교회들이 지금 어떻게 됐고,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박해를 견디며 사는지를 관찰하여, 그런 사태가 오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책을 세워야 한다.

우리는 타기야 정책을 잘 알고 경계해야 한다. 문제는 타기야의 원인이 되는 꾸란 자체의 내용을 교회는 물론 일반적으로 무슬림 자신들도 잘 모른다는 것이다. 꾸란과 이슬람교는 모르는 것에 대한 질문이 절대 금지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슬림들은 꾸란과 샤리아의 비인간성, 잔인성, 야만성 등을 보지 못한다.

그들이 알아야 하는 종교와 율법에 관한 부정적인 문제점들도 결코 그들의 경전이나 샤리아에서 찾지 않는다. 대신 오직 외부에서 모든 잘못을 찾아낼 뿐이다. 또 모든 무슬림들은 샤리아를 만든 자를 ‘알라’라고 믿기 때문에, 오직 복종만 한다. 때문에 판단력이 정지됐다. 오직 복종만 허락되는 무슬림에게는 결정권이 없고, 샤리아와 무함마드의 전통에 완전히 통제받는다. 무함마드는 “내게 복종하는 자는 알라에게 복종하는 자라”고 했다.

우리는 꾸란이 주장하는 불신자와 개종자 살해 명령과 세계 정복 명령을 알아야 하고 사법계에 접근하는 무슬림들의 숨은 계획을 간파하고, 한국의 미래를 이슬람화와 샤리아의 지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더 세심한 주의력으로 이민 정책을 세우고 난민들을 수용할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현재 국정원에서 입국해서는 안 될 블랙리스트에 있는 사람들을 잘 막아주고 있어 감사하다. 우리나라가 샤리아국이 되지 않고 중동이나 북부아프리카 같은 이슬람국이 되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이민 정책을 엄격히 마련하고 입국 무슬림들에게 일부다처제 국제결혼 지원자 추방, 남녀 성의 동등성과 인격의 존귀성(남녀는 하나님의 형상)에 동의, 하나원 훈련 같은 현지 적응훈련 기간 엄수, 성범죄자 추방과 재입국 금지에 동의, 샤리아법 입법화 거부, 이슬람 선교 행위자 추방에 동의 등을 이민 지원 양식서에 추가하여 서약을 받도록 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양식 서류를 빈틈없이 준비하고, 한국교회는 열심히 기도하며 오직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 민족과 교회를 보존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이다.

세금보고를 정직하게 합시다

세금보고의 계절을 맞아 로스앤젤레스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은 정직하게 세금을 보고할 것을 한인교회와 동포사회에 호소합니다.

첫째, 교회는 세금보고를 정확히 해야 합니다. 비영리단체인 교회의 세금보고는 면제되지만, 교역자와 교회직원, 그리고 봉사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바르게 보고해야 합니다. 한인교회는 재정을 투명하게 운영하여 관련 수익과 비용을 정확히 밝히고, 교인들에게 세금을 정직하게 보고하도록 권면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일반 납세자는 정직하게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합법적인 방법으로 절세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부정직한 방법의 탈세는 불법입니다. 탈세의 결과는 국가의 재정과 정부 예산의 부족으로 이어지고 그 손실은 고스란히 납세자에게 돌아오며, 후손들에게도 부담이 됩니다.

셋째, 성경은 십계명을 통해 거짓 증거 하지 말라고 하였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리라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정직한 세금보고 운동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정직한 세금 보고를 통해, 정직과 신뢰가 뿌리내리는 한인사회가 되고 미국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히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로스앤젤레스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로스앤젤레스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은 성경 말씀에 따라 바르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를 이루고자 하는 기독교시민운동입니다.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잠언 8:10)

책으로 통하는 새로운 세상

신간 도서

사랑은 언제나 옳다

김지철 | 두란노 | 188쪽

저자의 요나서 강해를 엮었다. 요나서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음도 마다하지 않겠다던 불같은 믿음도,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일 앞에서는 차라리 죽겠다고 돌아서는 우리의 알팍한 믿음에도 영적 경종을 울린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내하시며 추적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요나서를 통해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다.



기쁨, 기쁨이 가득한 오늘

찰스 스펔전 | 임종원 역 | 브니엘 | 264쪽

인간은 원래 애통하기 위해 지어진 존재가 아니라, 기뻐하기 위해 창조된 존재이다. 주님이 허락하신 기쁨을 제대로 이해하기까지는 어떤 그리스도인도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만드신 이유를 충분히 깨달을 수 없다. 저자는 인간은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고, 인간은 행복할 때에야 비로소 제 모습을 갖추게 된다고 강조한다. 천국에 속한 기쁨의 일부를 받아 누려야 한다.



구원의 길

김홍만 | 생명의말씀사 | 12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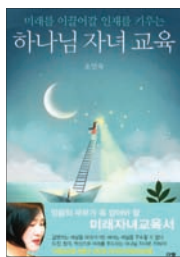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하는 성경적 가르침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간략하게 전하고 있다. 저자는 오늘날 교회가 진리의 말씀 체계에 대해 잘 모르고, 성도들은 교회에 출석하지만 구원의 도에 대해서 무지하다고 지적한다.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구원의 은혜가 없다는 것. 삼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알도록 적용한다.



하나님 자녀 교육

오인숙 | 규장 | 264쪽

저자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키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경고한다. 그렇다고 낙심하지 말 것은, 그 옛날 다윗이 선포했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함께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골리앗과 같은 미래를 바라보며 물맷돌을 준비해 승리할 것인지, 세상의 시선으로 두려워하며 포기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저자는 40여권의 책을 쓴 교육 전문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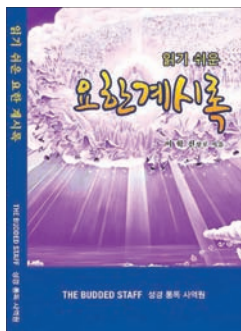


REVIEW

두려운 요한계시록? 위로와 소망의 책

성경에서 가장 읽기 어려운 책, 이해하기 어려운 책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한다. 장차 발생할 일을 계시하고 있기에 그럴 것이다. 수많은 이단들이 자기의 입맛에 맞게 각색해서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바람에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말하면 이단 취급을 받기도 한다. 따라서 목회자들이 설교하기 가장 힘들어 하며 조심스러워 하는 책도 요한계시록이다. 이 책에 대해 목회자가 아닌 장로가 책을 펴냈다. 그동안 성경과 관련된 많은 책을 펴낸 이학진 장로(중현선교회)다. 이 장로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도미해 사업을 하며 성경을 읽다 성경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됐고 저술 활동에 매진해 왔다. 2001

년 <요약교회사>란 책을 편저했고 2002년 장로로 장립된 후부터 본격적인 저술을 시작해 그동안 <성경통독과 이해를 위한 썩난 지팡이>, <읽기 쉬운 사도 바울>을 출판했다. 2015년에는 <하나님 나라>라는 책을 편저했으며 최근 <읽기 쉬운 요한계시록>을 펴낸 것이다. 저술 활동을 하면서 꾸준히 공부해 국제개혁신학대학원에서 성경학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하기도 했다. 또 성경통독 세미나 '썩난 지팡이' 강사를 비롯해 각종 통독 세미나를 시리즈로 열어 왔다. 이 책은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해부터 시도한다. 저자는 누구이며 언제 왜 기록했는지, 어떤 목적을 갖



읽기 쉬운 요한계시록
이학진 | 성경통독사역원 | 164쪽

고 어떤 주제를 다루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는지를 철저히 분석해서 요한계시록에 대한 '두려움'을 씻어 준다. 그리고 "환난 가운데 믿음을 지

킨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위로와 소망으로 가득찬 책"이라고 결론을 짓는다. 따라서 계시록은 우리에게 깨어있는 바른 신앙과 구령 열정을 더해주는 책이다. 저자는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의 내용을 몇 단락으로 나누어 장절별로 분석한다. 요한계시록 1장은 머리말에 해당하는 부분이며 2-3장은 서론으로 교회의 승리를 위한 성령의 권면이다. 4-16장은 본론으로 재앙과 영적 전투를 다루고 있다. 17장에서 22장 5절까지는 결론 부분으로 심판과 구원의 절정을 가르친다. 22장 6절에서 21절 즉 끝까지는 맺는 말로서 요한계시록의 가치와 여러 증언들을 담고 있다.

이런 큰 구분 아래 저자는 각 장의 주요한 절들을 하나 하나 분석하는 식으로 책을 이어간다. 요한계시록은 "읽기 어려운 책"이라고 생각되지만 저자의 책과 함께 한 장 한 장 한 절 한 절 읽어 가다 보면 어느덧 요한계시록이 말하고자 하는 전체적 뜻과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으로 성경 통독 세미나를 이끌어 온 저자의 관록이 묻어나는 이 책을 통해 요한계시록에 대한 두려움과 어려움을 걷어내 보면 어떤가? 이 책은 LA 한인타운 8가와 웨스트턴 길에 있는 로데오몰 알라딘 서점에서 구매할 수 있다.

주님미디어 새해맞이 이벤트

2017 CD PRINTING

교회설교, 부흥회 시디앨범, 신학교 강의 오디오북 소량, 대량 모두 제작이 가능합니다.

1,000장 이상 주문시
신년맞이 패키지
(프린트CD + CD봉투 + 라벨)포함입니다.

1,000장	\$350
3,000장	\$950 (디자인Free)

각종 사랑으로 화이합니다
Stand X-Banner \$65
거치대포함
*사이트에서 샘플선택

Retractable Banner \$140

A형 스탠드배너
\$160 (디자인 포함)

주님미디어 새해맞이 이벤트

2017 NEW YEAR EVENT

말씀 액자

\$35
16x16inch 기준

*주님미디어에서 직접 쓴 손글씨로 제작된 말씀액자입니다.
주님미디어에서만 주문이 가능합니다.

그밖의 다양한 콘텐츠 제작

전도용 물티슈
주보제작
머그컵&텀블러
교회로고

문의
323.265.0244
junimmedia@gmail.com
www.junimmedia.com

서문부터 심장 쫓깃하게 하는 루터의 개신교 최초 교리문답서

[크리스찬북뉴스 서평] 오직 성경과 구원, 사회적 책임과 윤리

“교리문답서가 나온 이유? 태만한 목사와 설교자들 때문.” 이 책을 손에 든 순간, 서문부터 필자의 심장을 쫓깃하게 했다. 위대한 신학자 루터가 교회를 위해 쓴 대교리문답이 바로 이런 사람들 때문에 쓰여졌다는 것이다. 물론 이것이 탄생하게 된 첫 대상은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그가 전했던 설교를 보완하여 개신교의 핵심 가치와 신앙의 기둥을 세우고자 함이었다.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난 후, 루터는 작센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시찰하게 된다. 교회 안에는 기독교 사상과 복음을 왜곡하고 오용하여 방종에 빠진 목회자들이 많이 있었고, 성직자라 할 수 없을 만큼 도덕적으로 해이하고 권력에 아부하며 사는 자들도 있었다.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 받았지만 세상의 종이 되어, 교회에서 마땅히 행해야 할 기본적인 가르침과 설교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교회도 약해져가고 성도도 구별이 없어져 가며 성직자는 죽어가고 있었다.

그래서 루터는 성도와 목회자의 재교육을 위해 기독교의 기본적인 다섯 가지 기둥을 바르게 세워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고자 한다. 이는 십계명과 신조와 주기도, 세례와 성만찬으로, 주님께서 이것들을 제정하신 이유와 목적, 그리고 이것들의 의미와 효력을 문답식으로 풀어간다.

오직 성경

그러나 필자는 이 문답서를 쫓으면서, 때로는 흥미롭게 읽으면서 루터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는데, 그것을 소개해보고자 한다. 우선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그는 책 전체에서 ‘말씀의 능력(Only Bible)’을 지속적으로 들려준다.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장신구로 여기고 인생의 달콤한 교훈 정도로 우습게 취급하는 세태 속에서, 그는 말씀을 악마를 공격하는 불화살이고 심각한 질병을 고치는 해독제요 치료제라 한다.

또한 이것은 일용할 양식과 같아서 매일 우리에게 닥치는 시련과 위험과 유혹에 맞서 당당히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어준다. 루터는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과 육체의 욕망과 세상의 권세 앞에서 말씀의 검으로 이길 것을 권면하고, 또한 마음 중심에는 항상 말씀이 새겨져 있어야 한다고 한다. 당시 배경을 보면, 교회에 말씀이 자유롭게 허락됐음에도, 그는 이 진리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



대교리문답
마르틴 루터 | 최주훈 역
복있는사람 | 373쪽

하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던 것에 심각한 위기를 느꼈던 것 같다.

그리고 그는 말씀이 우리의 어두운 것을 드러내 고치고, 살려내 거룩하게 하는 능력에 초점을 맞춘다. 목회자는 이 진리 연구에 힘써야 하고 이것으로 교회를 지켜내야 한다고 권면하며, 그 일에 수고하지 않는 목회자는 개집이나 지켜야 한다고까지 말한다. 또한 성도들도 말씀을 입에 두고 암송하고 묵상하여 진리의 사람이 되기를 힘쓰기를 격려한다. 이처럼 그는 말씀의 능력을 대교리문답 전체에 녹여놓았다.

조화 - 구원과 사회적 책임

그리고 두 번째 특징으로 ‘조화-구원과 사회적 책임’이 있다. 루터는 말씀의 절대성과 우위성을 강조한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종교개혁 후에도 여전히 개혁되지 못하고 있는 교회의 현실과 타락하고 무능한 성직자, 무지한 채 살아가는 성도들 때문이다. 이제는 교회가 교황의 독재 밑에서 벗어났지만, 또 다른 여러 교황이 교회를 장악하고 있었다. 그래서 루터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교회에서 오직 말씀으로 깃발을 들어야만 했다.

그런데 필자가 대교리문답을 보며 놀라웠던 사실은, 왜곡된 율법으로부터의 구원과 교황으로부터의 해방이, 개인의 구원으로만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신 계명을 지킬 수 없는 인간의 무능 앞에서, 신조를 통해 인간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의와 사랑과 손길을 연결시킨다. 그래서 그는 인간이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어 하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개인 구원을 강조한다.

그러나 그것과 함께 대교리문답에는 정부와 사회와 연약한 자를 향한 구원의 소식도 많이 포함돼 있다. 교회와 국가에서 복음의 정신에 입각하지 못한 채,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고 사적 이익을 위해 사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한다. 또한 사회적인 힘이 없어 소외돼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이 있음을 증거하고, 교회는 그런 자들의 편을 들어야 한다고 가르쳐준다.

그렇다고 루터가 국가와 권세자를 향해 비판적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 그는 교회나 국가에 위임된 권세와 권한을 인정하고, 일반인들에게 그들을 마땅히 존경해야 한다고 권면한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순종은 거부하고, 선을 권장하고 악을 징계하는 권력에 순종하는 것이라 한다. 이로 볼 때 루터의 ‘율법에서 복음으로의 정신’이 개인에게만 국한된다고 지금까지 여겨왔던 것은, 교회의 오해였고 서구적 사고의 한계였던 것 같다. 지금이라도 대교리문답을 통해 율법에서 복음으로의 고귀한 가치가 드러났으니, 이를 통해 더 심도 있는 연구도 있게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해 보게 된다.

윤리적 실천

세 번째로 루터는 이 책에서 ‘윤리적 실천’을 폭넓게 강조하는데, 이게 믿음이자 거룩이라고 한다.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알려줬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루터는 이 서신을 향해 ‘지푸라기 서신’이라 했다. 그러나 과연 그게 사실인가 의심이 될 정도였다. 물론 그 말이 공로사상에 저항하는 배경에서 나왔다고는 하지만, 오히려 그의 실천적 명령이 그것(지푸라기)을 반격하는 것 같았다.

루터는 사막이나 산 속에서 은둔하여 영성을 훈련하는 수도원보다 일상의 삶을 더 거룩하게 여기고 있다. 부모님께 순종하는 자가 어떤 수도사보다 훌륭하다고 하는가 하면, 집안일에 성실한 종이 어떤 사제보다 거룩하다고까지 한다. 또한 주어진 일에 충성하고 정직하며 속이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으며 이웃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이 참된 경건이며 하나님께 복을 받는 길이라고 한다.

2017년은 종교개혁 500주년이다. 독일에서 루터를 전공한 저자의 말에 의하면, 루터가 살았던 시대와 현재 우리의 상황과 교회의 모습이 거의 비슷하다고 한다.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개신교 최초의 문답서이고 갈빈의 <기독교 강요>의 기본틀을 제공하며, 다른 신앙고백서에도 기초가 됐던 이 책이 출판된 것은 의미있는 사건이다.

방영민 목사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위원

여러 관계들에 대해 명료한 답 원하는 20대에게

[추천도서] 5가지 친밀한 관계



5가지 친밀한 관계
레스 패럿, 레슬리 패럿
서원희 역 | 이레서원 | 304쪽

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듯하다. 상담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우리나라에서도 심리상담 분야는 앞으로 유망 직종으로 떠오르고 있다.

왜 상담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증가할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겠지만, 단 하나로 압축한다면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자기 자신에 대한 무지’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다. 자신의 내면을 진지하게 살펴보면, 자기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그 자기가 아님을 분명히 발견하게 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분별하려면 약간의 지식과 훈련이나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약간의 지식이라 함은 마음의 구조나 정신역동 혹은 자신을 분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심리학적 지식이 있어야만, 자신을 정확하게 살필 수 있다(그러나 원론적으로 절대 자기 자신을 완전히 알 수 없다).

그리고 훈련이나 노력이 필요한, 심리학적 지식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진정한 자기 자신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살피는 것이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결코 쉬운 작업도 아니다. 더욱이 자신의 상처나 어두운 부분을 직면하는 것은 매우 고통스럽고 불쾌한 일이기도 하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을 정직하게 직면하기보다는, 투사를 하거나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켜

버림으로써 참된 분석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관계의 비법?

본서는 다섯 종류의 관계에 관해 도움을 주고자 한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연인’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이다. 자기 스스로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에게 부정적인 마음이 해소되지 않을 때, 가족이 실제로 집으로 다가오거나 짐처럼 느껴질 때, 친구간의 우정이 시험의 도마에 오를 때, 연인의 관계로서 어떻게 잘 유지하고 발전시켜야 할지 막막하거나 관계를 정리하고자 할 때, 하나님에게 시험이 들었을 때 등을 다루고 있다.

모든 관계는 반드시 시험대에 오른다. 완벽한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저자는 임상학자답게 관계를 유지시키는 것만이 답은 아니라고 말한다. 그러나 관계를 유지하는 것, 회복하는 것, 끝을 내는 것 모두 책임과 노력이 따라야 한다. 분명한 것은 저자가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실제 상황에서는 명료하지도 않을 뿐더러, 간단하게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다.

본서는 20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듯하다. 스스로 독립된 자아로서 책임 있는 삶을 출발하고 있는 20대의 삶의 현장은 너무나 많은 것들을 요구한다. 이제 막 부모의 그늘에서 벗어난 젊은이들은 인정하기 싫겠지만, 그렇게 노련하지 않다.

스스로 어른들의 모습을 보고 실망하거나 비판을 가하고 훈수를 두려고 해 보지만, 왜 어른들이 최선이 아닌 차선을 선택하거나 겉으로 보기에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를 맘껏 누리고자 하며, 답답한 어른들의 훈계보다 스스로 더 현명한 선택을 하고 있다고 자신하고 살아갈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당당한 자신감은 3년을 버티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본서와 같은 책이 필요할 것이다.

강도현 목사(크리스찬북뉴스 운영자)

북한간부의 하나님을 만나기까지와 순교한 스토리

- 우리들의 회개와 동족들의 마음을 얻어 통일의 꿈을 줄 두 권의 책 -



- 구입: 미주동역사와 기드온동족선교회 (\$20/권당)
- 문의: (425) 775-7477, www.gideonbrothers.org
gbmwusa@gideonbrothers.org (온라인주문가능)
- 주소: GBMW (체코모더명과 우편수취명 동일)
16825-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웨딩캐더링, 어디서 할까
늘 고민이시죠?**

캐더링의 맛과 멋을 동시에 해결해 드리는
LA캐더링을 만나세요. **선택**의 폭이 **다양**해 집니다.

30여년간 늘 발전해가는 맛과 서비스로 캐더링업계에 최고임을 자랑하는 LA 캐더링이 맛을 더한 특급 뷔페식 캐더링 서비스로 결혼을 준비중인 예비 신랑 신부의 큰 고민을 말씀하해결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전화하셔서 평생 기억에 남을 특급 캐더링 서비스를 예약하세요.

결혼식 피로연 캐더링 전문업체

www.lacatering.com

편리한 예약 상담 / 신속한 견적 서비스

323.730.8585 • 714.925.9801

Two Rowland Heights Churches Hold Hands in Prayer for the City

BY RACHAEL LEE

Two churches in the Rowland Heights area of Southern California gathered together for a joint night of worship on Friday, as leaders of the congregation highlighted the significance of unity in the body of Christ.

"It doesn't take much to know that we have a divided nation," said Pastor Soon Teck Lee, the lead English ministry pastor at Rowland Heights Christian Community Church (RHCCC), at which the worship night took place.

Addressing the congregation of some 100 members from RHCCC and The Home Church, Lee said that in contrast to the division that may be evident today, Christians are already united by Jesus.

"We are not supposed to create the unity — in fact, that unity has already been made," he said. "Jesus, by dying on the cross, he has broken down the wall of hostility and has brought us together as one body."

Lee added that having joint worship services like this one demonstrates that unity, and that

churches need each other to do God's work.

"No church — however gifted, however big — is an island entire of its own," said Lee. "We need every one of these churches to be healthy and strong and to reach out."

The joint worship night is a result of a gathering of pastors from four churches in the Rowland Heights area that has taken place on a regular basis for about six months, according to Pastor Mitchell Perez of The Home Church.

"We have formed relationships with some of the fellow English Ministry pastors in the area and a few months ago we talked about doing a Combined Night of Worship for the purpose of bringing our congregations together to glorify God, display the unity, and diversity in the gospel," said Perez.

"I think it's important for our churches to understand how God is working through surrounding Jesus-loving churches around us," he added.

The churches come from differing denominational backgrounds

as well, including Nazarene, Baptist, and Methodist denominations.

Those who attended the joint worship service — which included a diverse age representation, with children, teens, young adults, and adults in their later years — heard messages from both Lee and Perez. Praise bands from both churches led the congregation into worship.

Attendees also gathered in smaller groups of people from both churches to pray together for "God to continue to use our churches to make disciples," for "God to use us to help lost people find Jesus in our jobs, schools, families, and friends," for "God to give pastors wisdom and boldness in leading our churches," and for the city of Rowland Heights and those in the city who "don't know Jesus."

Perez, who shared a message on spiritual warfare, said that prayer is the very means by which Christians can join in the spiritual realm and the spiritual battles that are taking place.

"God sovereignly works through our prayers," he said.



Members of The Home Church and Rowland Heights Christian Community Church gathered together on March 3 to worship and pray together for the city.



Korean pastors in Los Angeles visited the Los Angeles Police Department (LAPD)'s Olympic Community Police Station and hosted a barbecue on March 2 to express gratitude and appreciation. "On behalf of the Korean community, I want to say thank you to our police officers who are serving in Koreatown," said Sam Shin, the vice president of the Southern California Korean Ministers Association.

Southern California's Korean Women Join Others Across the World in Prayer

Korean Christian women in Southern California joined women across the globe in prayer for the Philippines, commemorating the World Day of Prayer. These women gathered on March 4 at Oriental Mission Church under the theme, "Am I Being Unfair to You?"

The World Day of Prayer has a 130-year history, and was started in 1887 by Mary Ellen Fairchild James to pray for those who immigrated to the U.S. The day of prayer has grown since then, and organizers now choose one nation to pray for each year. Women from that chosen country write a prayer letter, which is read at all of the gatherings that convene in-

ternationally. Those who gather to pray also collect offerings and send them to the selected nation.

This year's World Day of Prayer focused on the Philippines.

Korean women in Southern California have started gathering to commemorate this day since 1979. Though the World Day of Prayer is marked by the first Friday of March each year, this Southern California gathering takes place on the first Saturday instead.

At this year's gathering, Rev. Jim-Bob Park, the senior pastor of Oriental Mission Church, shared a message according to the theme of this year's World Day of Prayer.

'God Is Doing Something Remarkable in Korea'

Pastor David Hwang of Jubilee Church shares his Seoul journey

BY RACHAEL LEE

When he set out on the plane to Seoul in 2001, Pastor David Hwang only planned to stay there for two years. Little did he know that he would end up planting his feet there for 16 years (and counting) as a local church pastor.

Hwang's journey in the motherland began when he decided to go to Seoul to take care of his younger brothers who were pursuing music careers there. Though Hwang himself was born in Korea, the language and the culture were unfamiliar to him, as he immigrated to the U.S. at the age of five. He only planned to stay in Seoul for two years and return to the U.S. after finishing up his studies at Torch Trinity Graduate School. But it was those very two years that "radically changed [his] perspective," in Hwang's words, and he received a calling from the Lord to stay in Korea.

Hwang hadn't even been sure when he set out to Korea whether he would become a pastor at all, and even if he did become a pastor, he imagined himself more of a "free, traveling preacher," as he put it. As the son of a pastor himself, Hwang said, "I saw the pains of the local church pastor, day in and day out, week in, week out."

But while Hwang served as the English ministry (EM) pastor at Jeil Sungdo Presbyterian Church during those two years, he said, "The Lord showed me, number one, how much he loves his church — universal and especially the local

church."

"We're not omnipresent like the Lord, so if you really want to love the church, if you want to love like he loved us, you have to do it with a limited number of people on a regular basis," he added, saying that that was what led him to commit to local church ministry.

"The other big piece is that while I was serving at Jeil Sungdo EM, I was taking people to mission trips all over the place and I noticed — the answer is Jesus for everyone. Every nation needs Jesus," said Hwang. "I saw with my own eyes the nations are hungry for the truth that sets free, for life and for life abundant, and that's only in Jesus. No matter what the context, it didn't matter — everyone needs Jesus."

*"The Lord showed me ...
how much he loves
His church -- universal, and
especially the local church."*

That also led him to realize that Korea is "geographically strategic" to reach many nations in Asia.

"Korea is so geographically strategic. It's the only reached country in the 10/40 window. It's so quick to go to countries in Asia, and so much more efficient from a geography standpoint."

Hwang added that the economic development of Korea was another factor brought to his attention. The rapid economic growth in Ko-

rea over the past several decades also places it at a strategic position as a missionary-sending country.

"Clearly God has been doing something remarkable here in Korea," he added.

"All these factors were shown to me, and I just said, 'I see why you're showing me this. My citizenship is not in the U.S.; it's in heaven. Until you call me home, I'll live as a sojourner in this land. If you want me to build your church to all nations from our motherland, that's what I'll do.'"

With these convictions, and with a further conviction to plant a church, Hwang and a few others launched Jubilee Church in 2006. What started as a group of 11 people praying together grew into a congregation of 600 people in almost three years. Today, the church has some 650 members.

Over the past 16 years, Hwang said he has seen many changes in the English-speaking community at large, and in the English-speaking Christian community. First, he noticed that more and more foreigners are being drawn to South Korea for various reasons that he would not have expected years ago, such as their interest in K-Pop and Korean dramas.

Moreover, there has been an increase in English-speaking church plants in Seoul, according to Hwang. While many of the larger churches in South Korea have had English or international ministries for many years, many independent, English-speaking churches have been planted over the past



Pastor David Hwang serves as the senior pastor of Jubilee Church, located in Seoul, South Korea.

several years as well, Hwang said, as he mentioned churches such as Lifespring Church, Crossway Mission Church, and Way Church.

Another interesting development that Hwang has witnessed is an increasing interest in the Korean-speaking population in collaborating with the English-speaking community, or even attending English services on a regular basis.

For Jubilee Church in particular, intercultural couples with both Korean and English speakers were one of the factors that led to an increasing number of Korean speakers who became regular members of the church. Today, the church offers Korean translations for its 10 AM service.

These developments led Hwang to shift the vision for Jubilee Church as well. The church was planted with the vision of being a

"hub for missions," a place from which missionaries would continually arrive and be sent out into various destinations. But today, the church holds the vision of being an "international, missional church in Seoul serving Asia," said Hwang, a church that is committed to being a steady presence in Seoul.

"We changed the vision because we wanted to sustain a connection here in Korea," he explained. "Westerners need to commit to live in Asia, but for most, they live here five to eight years and they leave."

For the developing and growing international community in Asia, Jubilee aims to build a community in Seoul that remains as a faithful source of support and connection.

"God is doing something amazing here," Hwang said. "It's something in line with the kingdom of God coming."

Local Churches and Ministries

Christianity Daily

A ministry through journalism

For questions about advertising and donations
T.(213)739-0403 F.(213)402-5136

Sunday Celebration Services: 9 AM & 11 AM
Wednesday College Fellowship: 7 PM

PASTOR JUSTIN KIM

Bethel English Church

18700 Harvard Ave, Building C, Irvine, CA 92617
T. (949) 385-3051 / www.ocbethel.com



Sunday Services: 9:30 AM & 11:30 AM
Sunday School: 11:30 AM
College Group Meetings: Fridays at 6 PM

PASTOR SUNG CHANG

Charis Mission Church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www.charis.church



Placentia Site Sunday Services: 10 AM
Artesia Site Sunday Services: 11:30 AM, 12:45 PM

PASTOR HAROLD KIM

Christ Central of Southern California

Artesia: 11841 178th St, Artesia, CA 90701
Placentia: 500 Bradford Ave, Placentia, CA 92870
T. (562) 246-0363 / www.christcentralsc.com



Supreme Court Sends Back to Lower Courts Case Involving Transgender Teen Gavin Grimm

The U.S. Supreme Court announced it would no longer hear a case involving the question of whether a transgender teen has the right to use the school's restrooms and sex-segregated facilities according to gender identity rather than biological sex.

The high court was scheduled to hear the case involving Gavin Grimm from Virginia on March 28, but instead, sent the case back to the lower courts on Monday.

Up until this point, the highest court which has ruled on this case is the 4th U.S. Circuit Court of Appeals, which ruled in favor of Grimm in April of last year. The Supreme Court's action will vacate that ruling, and the appeals court will have to reconsider the case.

The Circuit Court had relied heavily on a guidance issued by the Obama administration in 2016, which directed public schools across the nation to allow transgender students to use restrooms and other sex-segregated facilities according to their gender identity.

The administration referred to Title IX of the Education Amendments of 1972, a non-discrimination clause, and interpreted 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sex to also include gender identity. The administration also

said states which do not follow the guidance could risk losing federal funding for education.

However, the Trump administration issued another guidance in February reversing that of the Obama administration, saying that the latter guidance does not "contain extensive legal analysis" and that it does not "explain how the position is consistent with the express language of Title IX, nor did they undergo any formal public process."

The 4th U.S. Circuit Court of Appeals will now have to consider whether or not the definition of "sex" in the Title IX clause does include gender identity.

Until the issue is brought again to the Supreme Court, which is unlikely to happen this term, the issue of the use of restrooms, locker rooms, and other facilities will be determined by lower courts across the nation.

Grimm, a 17-year-old who was born as a female but identifies as male, expressed determination for the long run.

"I'm in it for the long haul," TIME quoted Grimm as saying in a press call. "If it took 10 years, I'd stick with it."

"The Supreme Court has missed an opportunity to end the painful discrimination currently faced by tens

of thousands of transgender students nationwide," said Eliza Byard, executive director of the LGBTQ youth advocacy group GLSEN.

Kerri Kupec, a legal counsel from Alliance Defending Freedom, said that the Supreme Court's decision "only makes sense."

"It only makes sense for the Supreme Court to vacate the 4th Circuit's earlier decision and to instruct it to reconsider this case," Kupec said. "The 4th Circuit should affirm the plain meaning of Title IX, which protects boys' and girls' privacy in locker rooms, showers, and restrooms."

Meanwhile, the lack of decision on a federal level may leave schools at risk of more lawsuits, according to Francisco Negrón Jr., the chief counsel for the National School Boards Association.

"The ultimate constitutional issues remain unresolved for the school districts," Negrón Jr. told The Washington Post. "Regardless of what action they take, they are liable to be sued by persons on both sides of this issue."

Meanwhile, the Supreme Court has had a vacant seat since the passing of Justice Antonin Scalia. Trump's nominee for the seat, Neil Gorsuch, will face confirmation hearings in March.

Trump Administration Issues New Executive Order on Refugee Entry

The Trump administration issued a new executive order on Monday, revising a previous executive order regarding the entry of refugees from countries in the Middle East and Africa.

Called the "Executive Order Protecting The Nation From Foreign Terrorist Entry Into The United States," the order took into consideration the numerous legal issues that came about with the previous executive order, and loosened certain restrictions on entry into the U.S.

For instance, those who lawfully obtained visas and those who have already been granted asylum are no longer under the 90-day entry ban.

While the previous executive order restricted entry for 90 days from seven countries, the new executive order reduced that restriction to six countries, including Iran, Libya, Somalia, Syria, Sudan, and Yemen. Iraq, which was previously part of the seven restricted countries, has been taken off of that list.

The indefinite entry ban for those coming from Syria has also been lifted, and those from Syria will now

not be allowed to enter the U.S. for 120 days.

The country's refugee program has also been halted for a 120 days, just like the previous executive order had stated, in order to give the U.S. government time to evaluate and develop its vetting program.

The new executive order limits the number of refugees to be granted entry into the U.S. to 50,000. Under the Obama administration, that number was 110,000.

Of concern to some conservative activists was a removal of language that religious minorities would be prioritized, a portion in the previous executive order which was criticized by some as being discriminatory.

The newly released executive order will take into consideration "fear of persecution or torture," but does not explicitly prioritize religious minorities. It also states that the previous order "did not provide a basis for discriminating for or against members of any particular religion."

"While that order allowed for prioritization of refugee claims from members of persecuted religious minority groups, that priority ap-

plied to refugees from every nation, including those in which Islam is a minority religion, and it applied to minority sects within a religion," the order states. "That order was not motivated by animus toward any religion."

Advocates for prioritizing religious minorities argued that it is necessary because they are facing genocide and targeted attacks in their respective countries.

Andrew Walther, the vice president of communications for the Knights of Columbus, wrote in the Morning Consult that the Obama administration also prioritized offering help to religious minorities such as Christians, Yazidis, and Shia Muslims.

"It is not un-American to prioritize those who have been targeted for genocide because of their faith," Walther wrote. "It has been seen as quintessentially American for a century. And religious persecution has long been a key qualifier for refugee status under our immigration laws."

This new executive order takes effect on March 16.

Kentucky Congress Passes Bill Protecting Students' Religious Expression

The Kentucky state House of Representatives passed a bill on Monday that would secure public school students' freedom to express their religious and political beliefs in their school work, clothing, and in other methods.

Senate Bill 17, which was passed by the House with an 81-8 vote, is now headed to the governor's desk for signature. The Senate voted in favor of the bill 31-3 in February.

The bill would prohibit school officials from restricting students' religious and political expressions in various methods at public schools and public universities in the state, including in their homework, artwork, and speeches. Students would also be able to wear clothing that display religious messages, use school facilities outside of class times for religious club meetings, and announce religious club meetings through school media.

Supporters of the measure said that the bill simply affirms the rights guaranteed to students by the Constitution, but said that they felt the need for the bill due to recent occurrences in which students were prohibited from expressing their religious beliefs.

"We've seen in other locales where the clear constitutional right to religious liberty has been imposed upon," Republican Rep. Tim Moore was quoted by River City News as saying. "It is right that we in Ken-



The Kentucky state capitol pictured in 2002. Both the state's House and Senate passed Senate Bill 17, a bill allowing students to express their religious beliefs through various methods at school. (Photo: Public Domain)

tucky make very clear as a body — as our fellows down the hallway have done by an overwhelming bipartisan majority — that we will protect the right to express religious and political viewpoints in public schools and public postsecondary institutions."

"All this legislation does is put into law and recognize those constitutional facts," Republican Rep. Stan Lee was quoted as saying by the Lexington Herald-Leader.

However, opponents of the bill said that the measure is unnecessary and may give some a greater license to discriminate against the LGBT

community.

Democratic Rep. Jim Wayne said that if the bill is passed, "in some areas it may be OK for a student to call a gay student a sinner based on religious beliefs."

"I believe religion should be expressed in church or in the privacy of my home, not in public schools," Kentucky Today quoted Democratic Rep. Joni Jenkins as saying.

According to the Associated Press, the potential for discriminatory intent was not the focus of discussion on the House floor when the bill was being deliberated.

Sunday Services: 9 AM, 11 AM, and 2 PM
Youth Services:
Sundays at 11 AM, Fridays at 7:30 PM
Sunday School: Sundays at 11 AM

PASTORS DAVID LEE & SUNG HONG

Cornerstone Church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www.cornerstonetv.com



Sunday Services: 11:30 AM

PASTOR HENRY LEE

Crossroads Church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www.crclafgc.com



Brea Campus Service Times: 9:30 AM, 11:30 AM
Irvine Campus Service Time: 10:30 AM

PASTOR STEVE CHOI

Crossway Community Church

Brea: 695 Madison Way, Brea, CA 92821
Irvine: 100 Honors, Irvine, CA 92620
T. (714) 529-5551 / crossway-church.com



EM Sunday Service: 12:00 PM
Children's & Youth Services: 10:30 AM
Friday Night Bible Study (Jr. High - Young Adults): 7:30 PM

PASTOR JAMES KWAK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OC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1-2029 / www.oc1church.com



Sunday Service: 9:30 AM
Children's and Youth Services:
11:30 AM on Sundays, 8:00 PM on Fridays

PASTOR RONNIE PARK

Good Stewards Church

2701 S Woodgate Dr, West Covina, CA 91792
T. (626) 913-6611 / www.gschurch.org



Sunday Services: 1:30 PM
Children's Ministry: 11 AM
Friday Worship: 7:30 PM
Dawn Prayers: 5:30 AM Tu-F; 6:30 AM Sat.

PASTOR WON LEE

Gospel First Korean Baptist Church

8132 Garden Grove Bl, Garden Grove, CA 92844
T. (714) 799-5673 / email: 8132gospelchurch@gmail.com



Sunday Services: 9 AM & 11 AM
Bible Studies: Wednesdays at 7 PM
Prayer Meetings: Tuesdays at 11 AM, Saturdays at 9 AM

PASTOR SAM KOH

Hillside Church

2241 N. Eastern Ave, Los Angeles, CA 90032
T. (323) 909-9062 / www.hillsidelao.org



Sunday Services: 9:45 AM

PASTOR PHIL KIM

The Home Church

19271 Colima Rd. Suite A/B,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384-1393 / thehomechurchrowland.com



Sunday Services: 11:45 AM

PASTOR DAEVID YOON

Inland Church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 inlandem.org



Sunday Services: 2 PM

PASTOR SUNGWON 'SJ' JAHNG

LA Open Door Community Church

3281 W 6th Street, Los Angeles, CA 90020
T. (213) 986-8496 / www.laopendoor.church



Sunday Services: 9 AM & 11 AM
College Group Meetings:
Sundays at 12:30 PM, Fridays at 8 PM

PASTOR STEVE CHANG

Living Hope Community Church

1215 W. Lambert Road, Brea, CA 92821
T. (562) 694-2100 / www.livinghopecc.org



Sunday Services:
8:30 AM, 9:45 AM & 11:15 AM

PASTOR PAUL KIM

Redeemer Presbyterian Church

1831 South El Camino Real Encinitas, CA 92024
T. (760) 753-2535 / www.redeemersd.org



Sunday Services: 1 PM
Youth Group Services:
Sundays at 11 PM, Thursdays at 7 PM

PASTOR DANIEL HAN

Restore Fellowship

2525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
T. (213) 487-3920 / www.ladongsan.com



Broadway Campus Sunday Services:
9:45 AM, 11:15 AM, 12:45 PM
Jefferson Campus Sunday Services:
9:30 AM, 11:30 AM

PASTOR MICHAEL LEE

Young Nak Celebration Church

Broadway: 1721 North Broadway, LA, CA 90031
Jefferson: 150 W. Jefferson Blvd., LA, CA 90007
T. (323) 227-1414 / www.ynccla.org





푸른투어 LA
PRT Tour & Consulting
cst# 212654040

문의전화 (213)739-2222 인터넷예약 www.PRTTOUR.com

뉴저지 본사
(201)313-0899
725 Grand Ave #305
Ridgefield, NJ 07657

플러싱 지사
(718)928-3333
154-08 Northern Blvd #2B
Flushing, NY 11354

로스엔젤레스 지사
(213)739-2222
3170 W. Olympic Blvd. #A
Los Angeles, CA 90006

토론토 지사
(647)686-6000
5467 Yonge Street, Suite 2B
Toronto, ON, M2N 5S1

서울 지사
(02)739-0890
Doosan We've 58 #1238
Jongno-gu, Seoul

여행설계사
데비트강의
여행이야기
AM 1650
매주 화 1:30pm

미국여행
대박여행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 전망대
자유의 여인상 유람선 전격 포함!

2017년 푸른투어와 **SBS**가 함께하는

10차
11차

대륙횡단

13박
14일

3월 조기 예약 \$100 할인!



\$2,599
\$2,699

LA출발 ▶ 13박 14일 [항공포함 NY-LA]

특별출발: 5월 23일

뉴욕출발 ▶ 15박 16일 [항공포함 LA-NY]

특별출발: 6월 5일

미서부 진출 기념 동부 특선

미동부 캐나다 사은특가 특선 (3월/4월)

워싱턴 DC
벚꽃 축제

특선

- 푸른투어 미동부 직판 기념의 기쁨을 고객과 같이 합니다.
- 벚꽃과 함께하는 미동부 캐나다 특별 출발일은 3월 25일과 4월 8일까지 매주 수/토 입니다.
- 푸른만의 워싱턴 DC 벚꽃 뷰 포인트 워킹투어

실속 미동부 5일 ▶ **매주 수/토 \$450** +항공 (뉴욕/워싱턴DC/나이아가라)

미동부 6일 ▶ **매주 수/토 \$550** +항공 (미동부 5일 + 천심)

미동부/보스턴 7일 ▶ **매주 수/토 \$660** +항공 (미동부 5일 + 보스턴/뉴포트)

미동부/캐나다 8일 ▶ **매주 수/토 \$760** +항공 (미동부 6일 + 몬트리올, 레이크조지, 퀘벡)

미동부/보스턴 캐나다 10일 ▶ **매주 수/토 \$950** +항공 (미동부/캐나다 8일 + 보스턴/뉴포트)

5박 6일

- 예일대학에서 박사과정에 있는 정태현 특강 1시간
명품 IVY 리그 \$1,399 ▶ 3/28 4/4 [특별출발]

브라운/예일/하버드/MIT/프린스턴 유엔/존스홉킨스/콜롬비아 **\$1,399** ▶ **매주 화/토**

브라운/예일/하버드/MIT/프린스턴 유엔/콜롬비아(나이아가라) **\$1,499** ▶ **매주 수**

새로운 여행 문화를 창조하는 푸른여행~ 푸른감동~ 푸른투어가 있습니다.

최고급 5성급 호텔 숙박 (Riu Resort)
항공/호텔/식사/주류/관광/안내 일체 포함



“태양의 신전 그림자가 만들어 내는 미스테리 Kukulan의 기적은 3월 20일(목) 3:30pm~5:30pm 사이 펼쳐 집니다.”

México

칸쿤 치첸이사

3박 4일 **\$1,199**

▶ 3월 18일 특별출발

치첸이사 한국인 가이드 동행 / 항공 포함

전설의 잉카 문명!

페루

신비의 도시 마추픽추
미스테리 지상화 나스카 경비행기

5박 6일 **\$2,690** ▶ 3/13, 27

마추픽추 / 나스카 지상화 / 항공 / 관광 포함

2월~4월까지 특별가

쿠바

한국어 가이드 동행
최소 2명 이상 출발 가능

5박 6일 **\$2,599** (항공포함)

3박 4일 **\$1,599** (항공포함)

4명 이상 수시 출발 / 4성급 호텔

용암, 분화구 대자연의 경이

코스타리카 4박 5일

4박 5일 ▶ **수시출발 \$1,030** +항공

5박 6일 ▶ **수시출발 \$1,130** +항공

- 힐링! 청정 자연을 그대로!

Carlsbad, CA **특선1**

Aviara GOLF Club
기아클래식 결승전 참관

LPGA
기아 클래식



▶ 3/26 **\$99**

항공포함 **특선2**

포항-울산-경주
평창-고성-서울-평택

재향군인가족
안보산업시찰단

5박 6일



▶ 4/10 **\$1,750**

항공포함 **특선3**

그랜드 티톤 국립공원
솔트레이크

엘로스톤 3박 4일

▶ 특별출발: 5/26 6/12
6/12-8/21 까지 매주 월출발

\$799



특선4

세도나 기차 포함
기존 세도나와 차별된 코스

미티어 크레이터
세도나 기차
생태 크루즈 3박 4일

▶ 4/17 **\$399**



특선5

메모리얼 데이
연휴 핵심

나이아가라 특별편
3박 4일

▶ 5/26 **\$949**



미서부, 동부, 캐나다, 한국 모든 여행을 푸른투어 5개 지사에서 직접 진행합니다.

대자연과의 만남 **미서부**

다른 회사와 차별화된 미서부 관광

- 1 라스베가스 특급호텔 몬테카를로 호텔 숙박
- 2 다렉스 리무진 라스베가스 야경 투어

▶ 매주 월 **그랜드 캐년 / 브라이스 캐년 / 자이언 캐년**

3대 캐년 **4일 \$389**

3대 캐년 + 요세미티/샌프란시스코 **7일 \$689**

▶ 4일 매주 화 - 7일 매주 화/토

4대 캐년 **4일 \$389**

4대 캐년 + 요세미티/샌프란시스코 **7일 \$689**

▶ 매주 화/토

그랜드 캐년 / 라스베가스 3일 \$299

▶ 매주 월/목/금/토

요세미티 / 샌프란시스코 4일 \$389

▶ 매주 화/토

미서부 실속 여행 6일 \$599

캐나다

- ▶ 토론토 시내관광 - 세인트 로렌스 마켓
- ▶ 오타와 의회 연방의사당 리도홀

HOLLYWOOD

LA 일일투어 \$99

▶ 매일 출발
(4인 이상, 한인 가이드)
“영화 ‘라라랜드’에서 세바스찬과 미아가 탭댄스를 추는 장면의 그리피스 천문대 방문”

올베라거리/다운타운/다저스스타디움/그리피스천문대/헐리웃거리/로데오거리(자랑관광)/신타모니카해변/파머즈 마켓/그로브 등

“9대 캐년 완전정복” 그랜드 씨클

6박 7일 **\$829** 특별출발 ▶ 3/24, 4/8



그랜드 캐년 / 브라이스 캐년 / 자이언 캐년 / 아치스 캐년 / 앤젤로프 캐년 / 모뉴먼트 밸리 / 캐피틀 리프 / 캐년 랜즈 / 글렌 캐년

“특급 몬테카를로” 미서부 4대 캐년

3박 4일 **\$389** ▶ 매주 화 출발

자이언 / 브라이스 / 앤젤로프 / 그랜드 캐년

▶ 4월 8일

▶ 4월 15일

▶ 4월 22일

▶ 4월 29일

▶ 5월 6일

▶ 5월 13일

▶ 5월 20일

▶ 5월 27일

▶ 6월 3일

▶ 6월 10일

▶ 6월 17일

▶ 6월 24일

▶ 7월 1일

“아름다운 우리강산을 동서남북 누비다!” **한국**

벚꽃맞이 한국일주 8일 \$2,099 [대한항공] ▶ 3월 30일

천년의 계곡 애고려 공원/칠십리 유람선 - 부여 / 담양 / 화개장터 관광 / 통영항과 한산대첩 / 진해 벚꽃

“아름다운 우리강산을 동서남북 누비다!”

新 한국기행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상품구매 가능!!

160,000 마일리지 전국일주 7일 ▶ **토 \$1,140** +항공

85,000 마일리지 서남부 4일 ▶ **토 \$610** +항공

85,000 마일리지 남동부 4일 ▶ **화 \$610** +항공

60,000 마일리지 한려수도 3일 ▶ **월금 \$430** +항공

제주 2박 3일 ▶ **토 \$240** +항공

부영 리조트 특급 호텔 ▶ **토 \$350** +항공

롯데 호텔 ▶ **토 \$350** +항공

롯데 시티 제주 ▶ **토 \$240** +항공

“푸른투어는 유럽에서 유학한 유럽 전문가가이드가 모십니다” **유럽**

유럽 4개국 성지순례 8일 **\$2,600** ▶ 4/24

동유럽 6개국 10일 **\$2,999** ▶ 3/16, 30 4/20 5/18 9/14

동서유럽 10개국 23일 **\$5,149** ▶ 4/7 6/2, 16 9/1

동남유럽 9개국 16일 **\$4,599** ▶ 4/28 5/12, 26 6/9, 23 7/14

서유럽 3개국 8일 **\$2,749** ▶ 4/7 6/2, 16 9/1

서유럽 4개국 12일 **\$3,399** ▶ 4/7, 21 5/5, 19 6/2, 16 7/7

프랑스 10일 **\$3,999** ▶ 3/30 4/9, 23 5/7, 21

스페인 8일 **\$2,699** ▶ 4/3 5/9

이태리 8일 **\$2,499** ▶ 5/10



푸른투어 LA
PRT Tour & Consulting
cst# 212654040

213.739.2222

인터넷예약 www.PRTTOUR.com

무료픽업 가능: 가든그로브/토렌스/세리토스/가디나/다이아몬드 바

광고상의 모든 컨디션, 가격, 일정, 호텔 등은 현지사정에 의해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항공상품은 비수기 기준으로 성수기시요금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